Buddhanews.com

현대불교

謹賀新年

제822호 | 2011년 2월 9일 수요일 (음력 1월 7일 · 불기 2555년 · 주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희망과 포부가 있어 잘 살려고 애쓰고, 삶의 보람을 느끼려고 애쓰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전통만 고집해선 불교 미래 없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첫번째

한국불교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불교위기론에 공감한 출·재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더 이상 변화의 고민 없이 옛 전통만 내세우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구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자들의 각성과 쇄신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 확인해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따라 부처님 정법에 바탕한 불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탁마의 자리로 삼자"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승복 소매 자락에 손을 넣은채 바라보기만 하는 방관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승가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각자의 해결방안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이날 토론자들의 위기원인과 해결방안은 다양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한국불교가 사회의 거대담론 논의에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화, 통일, 인권, 환경문제 등 현실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수행가풍과 청빈한 삶의 기조가 흔들린 데서 한국불교 위기의 원인을 찾았다.

주경 스님은 "조계종도 독신비구로서의 존재 유지와 몇몇 법적 제한을 제외하면 무한히 자유로운 상태"라며 "현대 사회에서 출가 승단의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구체적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승가 수행의 원칙인 탁발과 무소유 정신도 거의 포기된 형편"이라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재산 소유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없는 까닭에 중생들과의 만남은 단절되고 세속적인 정치화와 혼탁한 선거풍토 유입이라는 병폐를 끌어들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주경 스님은 해결 방안으로 △현실적인 승려 위상과 위의 정립 △수행과 포교, 교화활동의 조화를 꼽았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대토론회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성문 스님은 "승단을 운영함에 있어 비구들이 자주 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제반행사를 치르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지본처를 통한 불교 중흥'을 이끌 것을 강조했다. (3면으로 이어짐)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1300년 만에 고국에 온 왕오천축국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 200여 명은 1월 24일 1300년 만에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전시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을 관람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1세기 아쇼카 선언' 한다

화쟁위, 종교평화 등 신년사업 확정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올해 종교평화와 남남갈등 해소, 화쟁사상의 사회적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21세기 아쇼카 선언' 등 종교평화선언과 화쟁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 3대사업을 확정했다.

화쟁위는 종교평화를 위해 종교평화 선언을 준비 중이다. 종교평화 선언은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을 역설했던 인도 아쇼카 왕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21세기 아쇼카 선언'이라 명명한 불교계 자체의 선언과 범종교·시민사회와 연대한 선언이 함께 진행된다.

'21세기 아쇼카 선언'에는 불교인이 이웃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종교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총론과 강령적 지침이 담긴다.

선언문 조문 작업에는 신설된 기획위원회(위원장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종단 안팎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범종교·시민사회 공동 종교평화 선언은 화쟁위가 이웃종교, 시민사회와 공동 작업을 벌인다. 종교평화 선언문에는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항구적 종교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교평화 선언이 절실하다는 당위성과 범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화쟁위는 남남 갈등이 해결돼야 남북간 대립을 해소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 남남평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보수·진보간 대립 해소에 중점을 맞춰 진행된다.

화쟁 사상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종교계, 학계, 언론계, NGO 등 오피니언리더 그룹을 결집한 '화쟁포럼'을 운영키로 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화쟁포럼은 세미나·문화마당을 통해 화쟁 사상이 사회적 실천 담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불교(Smart Buddhism)을 위한 브레인 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위원회에는 박경준 교수(동국대) 조성택 교수(고려대) 이찬수 교수(강남대) 정윤선 KIST 연구원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불자인 것 당당히 밝혀 당선됐다

민주당 노인위원장 선 진 규 봉화산 정토원장

개신교인들의 불자에 대한 배타성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불자인 것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거에 의해 정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정계에서는 한 표라도 민심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불교 활동 경력을 당당하게 밝히고 정치권에서 당선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노인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장(사진)이 그 주인공. 선진규 정토원장은 조계종 포교사 제1세대로 포교론 등을 정립한 인물이다.

선진규 정토원장은 1월 18일 치러진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867표 중 939표, 득표율 50.3%로 노인위원장에 당선됐다.

일생을 포교에 진력하던 선진규 원장은 故 노무현 前 대통령과의 반연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선진규 원장은 28일 수송동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포교가이다. 무엇 하나도 포교를 떠나 생각한 적도 행동한 적도 없다"며 "노인위원장도 포교에 도움이 되겠다싶어 나선 것 뿐"이라고 말했다.

선 원장은 "민주당 내 세력들의 알력이 심해 SMS를 통한 흑색선전, 편파적인 여론조사로 선거를 치루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나의 노인위원장 당선은 불자임을 밝히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깬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선진규 원장은 "최고위원, 정책의장, 원내대표 모두 개신교인인 민주당 내에서 불자임을 밝혀도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다"며 "포교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이 불자임을 떳떳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 원장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유해를 정토원에 봉안했다. 재가자인 내가 법사로 있는 정토원에 봉안된 것은 재가불자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방지 공무원 지침서 나온다

불자 국회의원 출신 정 병 국 신임 문광부 장관

불자 국회의원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종교편향 방지 공무원 지침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문광부 장관은 1월 17일 국회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다면 종교 편향 방지 공무원 지침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의 "공직자의 종교 편향 발언 실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정병국 장관은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발언은 종교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불필요한 종교 갈등을 불러 일으켜 국론 분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교문화재 등 문화재 소방 방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병국 장관은 "문화재 방재 체계는 시스템은 있어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형식적 인 데가 많다.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의 60% 이상은 불교 문화재로서, 전체적으로 방재 시스템 모델을 만들고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822호 CONTENTS

▶5 특집인터뷰 / 현각 스님



▶6~7 특집 현장속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



▶14 불자기업 탐방 / 능인향당



▶15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현 대 불 교 신 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기자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하신 제품입니다.

스님, 현장근무, 군인, 시장상인, 경비, 낚시,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골프 야외활동에 좋음!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원단 2겹 봉재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 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리며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겉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겹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 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자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 색 상 : 회색
- 구 분 :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 상·하의 각 ₩20,000원

※ SET 구매 시 ₩ 38,000원


2중 재봉된 무릎부분


모든 부분 안감 융털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

일 주 문



각현 스님 자랑스런 충북인상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1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충북인사들의 모임인 (사)충북협회(회장 이필우)로부터 '자랑스러운 충북인상'을 수상했다.



혜자 스님 불우이웃돕기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월 16일 서울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과 함께 관내 독거노인 350여 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계사 신묘년 정초 천도재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2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묘년 정초 천도재를 봉행한다.



봉은사 백남준 5주기 추모재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1월 29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고 백남준 선생 5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화계사 장학금 전달식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2월 4일 숭산장학회에서 선정한 대학생 3명, 중고생 5명, 초등생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김천시다문화가족 2011오리엔테이션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진오 스님은 2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한다.



금강정사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광명 금강정사 주지 원명 스님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1월 23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법요식, 전통등 전시 및 금강정사 20년사 사진전 등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연우와함께, 설 특판수익 회향

불교계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 함께'가 신묘년 설 특판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기금으로 전달했다.

연우와 함께는 2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제수용 과일세트 수익금의 5%와 일부 수익금을 더한 민족문화수호기금을 전달했다.

'연우와 함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발의해 창업한 불교계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공익에 쓰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연우와 함께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해외약탈문화재환수운동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에 회향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응용불교학과 신설해 불교학 연구 중심되겠다"

정 병 조 신임 금강대 총장… 2월 18일 취임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천태종립 금강대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시작은 정병조 신임 총장 선출이다.

정병조 신임 총장(사진)은 1월 10일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회에서 신임총장으로 선출됐다.

"금강대가 불교계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 한국불교 세계화를 선도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정병조 신임 총장은 취임에 앞서 "대학 행정과 경영의 책임자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의 팀워크를 이끄는 리더로서 미래비전을 제시해 미래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병조 신임 총장은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내부적으로는 불교학 연구능력 배가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정 신임 총장은 "금강대는 논산지역 대표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정 신임 총장 체제하에 사회교육 차원에서 지역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각종 문화강좌와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지역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불교학 연구능력 배가를 위해 기존 불교학과와 불교복지학과에 응용불교학과를 신설해 저변확대에 나선다.

정 신임 총장은 "불교학은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불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잇어야 한다. 응용불교 연구에 대한 지원은 한국불교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문한국(HK)사업으로 선정돼 인문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고 금강대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수 정예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강대가 정 신임총장 체제 하에서 천태종의 중창이념인 '참된 인간성', '전문적 지식', '창조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병조 신임 금강대 총장의 취임식은 2월 18일 금강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김성녀, BTN 안방마님 되다

마당놀이 고별무대 후, MC로 발탁



한국전통 대표 인물들 만나, 불교예술 엿보다

'마당놀이'의 안방마님이었던 김성녀(사진)가 BTN불교TV의 새 프로그램 'BTN 예술공간 울림'의 새 안방마님이 됐다. 김성녀는 지난 2일 마당놀이 대표 3인방인 배우 윤문식, 김종엽과 함께 30년 동안 출연했던 마당놀이의 고별무대를 이후, 이번 프로그램에 새 진행자를 맡게 됐다.

프로그램은 작곡가 박범훈(중앙대 총장)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을 초대해 그들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김성녀는 출연자와 함께 사찰을 찾아 불교예술을 이야기하고 전통 예술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첫 녹화에는 장구 하나로 세계와 호흡하는 국악인 김덕수가 초대됐다. 이날 김덕수는 장구 연주와 함께 '사물놀이=김덕수'라는 공식을 만들기까지 삶의 여정을 풀어냈다. 또한 무용하는 아내와 힙합가수인 아들과의 흥미로운 가족사도 들려줬다. 앞으로 'BTN 예술공간 울림'에는 우리 시대 대표 소리꾼인 장사익, 소리의 맥을 잇는 국악인 안숙선, '효' 공연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영임, 그 외 이자람, 박애리 등 젊은 소리꾼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의 소리보유자, 전통 악단의 공연, 불교 무용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류건욱 담당 PD는 "우리소리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며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TN 예술공감 울림'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50분에 방송된다.

이은정 기자

"사람과 소가 구분 없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이충렬 감독 강연회

"워낭소리를 제작하면서 인간과 소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찍었습니다. 경계와 구분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 '워낭소리'의 이충렬 감독(사진)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1월 25일 템플스테이회관 교육관에서 주최한 제24차 포럼의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연에서 이 감독은 워낭소리의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투영시켰다고 밝혔다.

"불교와 삶은 닮아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이 모두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환생을 소재로 한 영화도 구상 중입니다. 풍경 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억지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담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젊은 시절에 동성애자나 탄광노동자들의 문제를 영상에 담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전하고자 했던 이 감독은 매번 실패의 쓴 맛을 봐야 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 감독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좌절감을 느끼며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급기야 공항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는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찍겠다며 3개월 동안 집에 있는 자신을 직접 촬영했다. 3개월 후 영상을 확인한 이 감독은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살을 포기한다. 그 순간 봉화에서 워낭소리에 출연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카메라를 다시 잡았다. 이충렬 감독은 이때를 절망의 순간에서 만난 '희망'이라고 표현한다.

"어르신은 소와 같은 속도로 걸으며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며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차츰 제가 너무 급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독은 3년 간 어르신들과 함께 워낭소리를 촬영했고, 이 순간만큼은 공항장애도 전혀 느끼지 못 했다. 이충렬 감독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였다고 깨닫고, 어르신과 호흡을 맞추고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촬영기법까지 버린다. 느린 속도로 소통하는 소와 어르신을 담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해 있는 그대로를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충렬 감독



영화 '워낭소리'에서 어르신이 소와 함께 걷고 있다. 출처: '워낭소리' 공식 블로그

워낭소리의 성공으로 이충렬 감독은 독립영화 최초의 100만 관객 동원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계산기를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사람들 역시 이 감독을 돈과 연관지어 생각할 뿐이었다. 스스로도 성공으로 오염된 마음을 되돌리기가 힘들었다. 워낭소리를 찍기 전처럼 다시 무기력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자는 날이 늘어갔다. 하지만 이충렬 감독은 최근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이다.

"불교적인 것들이 제게는 어머님 품처럼 편안합니다. 다음 작품도 불교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불교적 표현이라고 무조건 불상만 찍는 것은 관객들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담을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불광불교기본교육 · 대학 · 대학원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불광불교기본교육 (3개월)

주요내용
불자예절, 찬불가,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역사, 기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례, 불광신행 등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월요일 오전 10 – 11시 50분
· 저녁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50분

동 참 금 : 5만원(교재비 포함, 해인사 수련대회비 별도)
① 교육을 마치시면 수계법회를 통해 법명(法名)을 받습니다.
② 수료하신 분들에게 자신의 법명(法名)이 기록된 조계종 신도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개 강 일 : 2011년 3월 7일 (월)

※ 기본교육은 해인사 수련법회가 있습니다. 꼭 동참을 하셔야 수료가능 합니다.

입학문의 : 불광사 불광교육원 ☎ 02)417-2551 / www.bulkwangsa.org

불광불교대학원 (2년제 4학기)

불광불교대학 · 대학원은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하여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고, 신행과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가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조계종에서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교과과정

	1학기	2학기
1학년	근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식문, 바라밀수행법	대승불교, 계율론 바라밀신행과 불광운동
2학년	선불교, 포교와전법 불교사	경전강독, 불교사회복지 보현행원품

* 교과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 저녁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단, 재일 · 법회가 겹치는 날에는 오후 2시 – 4시)

지원자격 및 등록금
1.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2. 불교기본교육 수료자(미수료자는 1학기내에 수료하셔야 합니다.)
3. 등록금 학기당 25만원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사진 1장(반명함판), 기본교육수료증 사본

특 전
1.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불광법회 명교사 자격 부여
3. 학업성적 우수자 불광교수단 등용

불광불교대학원 (2년제 4학기)

불교대학원에서는 불교경전 및 수행법에 대한 심화학습과, 현대사회에 필요한 불교응용과정을 통해 불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불교대학원은 학점제로 운영됩니다. 매학기당 2~3개의 강좌가 요일별로 개설되며, 이 중 선택하여 4학기 동안 20학점 이상 이수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개설강좌
초기불교 / 유식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반야 · 중관 / 대승기신론 / 선사상특강 / 경전강독 등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 저녁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지원자격 및 등록금
1.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2. 등록금 학기당 25만원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사진 1장(반명함판), 불교대학졸업증 사본

특 전
1. 불광전문포교사 자격 부여
2. 학업성적 우수자 불광교수단 등용

대학 · 대학원 모집일정
1. 모 집 기 간 : 1월 24일(월) – 2월 20일(일)
2. 합격자발표 : 2월 22일(화) 서류전형을 통한 인터넷 발표
3. 등 록 기 간 : 2월 22일(화) – 2월 28일(월)
4. 입 학 식 : 2월 27일(일) 오후 2시 불광교육원 3층
5. 개 강 : 3월 8일(화)

입학문의 : 불광사 불광교육원 ☎ 02)417-2551 / www.bulkwangsa.org

※ 불광사에서는 '기본교육, 불교대학, 대학원' 이외에도 참선수행, 경전강좌 등 다양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장단에 춤추나, 파괴 없인 유신 없다”

한국불교중흥 대토론회서 재가자들 강경 발언 이어져… “한국 불교 감동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불교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토론회에서 재가자들은 불교계 전반의 대규모 혁신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어조의 발언을 이어갔다.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인은 “조계종이 과연 쇄신할 자세가 돼있는가”라며 “21세기 한국불교 새 디자인하겠다는 것이 맞나? 이를 위한 대토론회라고 하는데 그에 맞는 자기 반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곽 편집인은 “종단의 가장 큰스님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고백하고 나설 때, 종단 대표기구에서 그런 성찰이 제기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공연한 장단에 엉뚱한 춤이나 추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곽 편집인은 1965년 가톨릭 쇄신을 이끈 2차 가톨릭 공의회의 전개과정을 예로 들며 이번 토론회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곽 편집인은 “당시 가톨릭 공의회의 참석자는 단지 가톨릭 성직자와 신학자 만이 아니었다. 러시아 정교회, 콥트교회, 시리아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등 다른 종파 및 다른 교회 대표들이 초청받아 옵서버로 참관했다. 한때 이단으로 단죄했던 이들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에 참석해 교파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이면에 각 교구의 이해가 갈리고, 천태종 등 다른 종단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선언하는 등의 불교계 입장 차이를 짚은 것이다.

곽 편집인은 끝으로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 유신론을 들며 “파괴가 없이는 유신이 없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불교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종교본연의 감동을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성택 교수는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는 역으로 지나치게 교리를 강조해 감성이 들어설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다.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을 위한 감성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감성의 복권을 위해서는 사찰건물과 법당의 건축양식, 심지어 승복과 같은 스님들의 일상까지 변화와 쇄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2011년 한해동안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대표스님들과 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불교와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원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 행사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2월 23일에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원택 스님이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에 대해 발제하며, 3월 30일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이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에 대해 고찰한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의 자가진단이 빠졌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법 응 스님



“근원적인 성찰을 하려면 이 시대의 종단이 나아갈 방향과 무엇을 성찰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했다. 기획은 좋았지만 핵심이 빠진 토론회였다.”

법응 스님은 한국불교중흥 토론회가 핵심이 빠진 채, 말만 무성한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다고 평했다. 물질문명이 넘치는 첨단의 시대에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못 했고, 현재 조계종의 교학·교리 시스템이 지금 시대에 합당한지 점검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법응 스님은 이 날 토론회가 진단도, 대안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종단의 시스템과 권력구조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는데,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스님은 근본적 성찰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종단에 대한 자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객석과 의견을 충분히 교류하고, 사전에 토론회 내용을 공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응 스님은 “2월 토론회는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열리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첨예한 사안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 토론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응 스님은 이번 토론회 주제였던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과 관련,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직과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종단과 집행부가 얼마나 솔직한가 하는 점이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확실한 답이 나온다.” 박기범 기자

“불교의 목적은 열반이다”

홍 사 성 불교평론 주간, 열린논단서 강조



조계종이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토론회를 매달 실시하는 등 불교 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쇄신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의 목적이 깨달음이 아닌 열반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1월 20일 불교평론 회의실에서 마련된 열린논단에서 ‘깨달음이 불교의 목적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홍 주간은 “불교에서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한국 불교가 수행의 목적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주간은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오해에서 한국불교의 문제가 발생한다. 깨달음의 성취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불교는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교리적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사성 주간은 “감추지 말고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한 바를 툭 털어놓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부처님 뜻에 맞는 방법인지 정리해야 한다. 그 지평 위에서 포교를 하든 수행을 하든 해야 법륜(法輪)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 글은 그 출발선상으로 불교를 끌어내고자 하는 하나의 화두다”라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지금 페이스북 부루나에선

에로영화 제목에 Zen(禪)이?

페이스북 부루나 ‘Zen’ 용어 오·남용 토론 진행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Zen(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특히 뉴욕에서는 가구, 인테리어 또는 식당을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미고 “젠 하다”라는 표현을 쓰며 뉴요커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뉴요커들은 ‘Zen’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면서 단순하고 심플한 것들을 보면 ‘Zen Style(젠 스타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시아권에서 제작한 에로영화에 Zen이라는 단어가 붙어 개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 개봉돼 화제를 모은 홍콩 에로영화 〈옥보단〉이 3D영화로 제작돼 오는 4월 〈3D Sex and Zen〉 한국에 개봉될 예정이라는 것.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 같은 ‘Zen’의 오·남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S씨는 부루나에 “2000년 벽두부터 소위 ‘Zen Style’이 뜨면서 곳곳에 이 단어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에로영화 옥보단의 영문제목이 ‘SEX & ZEN’이군요! 세상에 이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인지! 선이 주목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불교나 수행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업적 논리에 나포되어 버린 느낌이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S씨는 “아마존닷컴(Amazon.com)에 가면 SEX AND ZEN이란 제목이 들어간 책이 여러 권 검색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꼭 이런 엉뚱한 것이 더 발전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Zen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그만큼 선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선(ZEN)’이라는 단어가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게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스티브 잡스 iMIND〉라는 책을 읽었는데 코분 치노라는 일본 선사가 잡스의 멘토였고, ‘간명직절(簡明直截)’의 선 정신이 잡스의 중요한 디자인 철학이라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 복지계, 연휴 잊은 이웃사랑 실천

설 맞이 행사 풍성
명절 의미 되살려

불교계 복지 기관들이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설날 행사 ‘일곱 빛깔 어울림 한마당’을 1월 28일 63시티에서 개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한화호텔&리조트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각국의 놀이 체험과 동요노래자랑이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천호 월서 스님은 27일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월서 스님은 매년 성북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6년째 꾸준히 전달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동행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장 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자승 스님은 설을 앞두고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활동에 참여했다. 자승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24~28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만두를 빚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설의 의미를 되새겼다.

화계사(주지 수암)도 27일 논산훈련소 법당신축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한말선(대법성) 신도회장 및 부회장단이 참석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기범·이은정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사서 : 석혜오, 석능현, 석윤오, 박선혜화)

원로회회장 석홍섭 대종사 원로회부회장 석만월 대종사
승정원장 석원정 대종사 총무원장직무대행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종 사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종회의장 석법일 대종사 호계원장 석무공 대종사
감찰원장 석다우 대종사 감찰국장 석법진 종 사 호법원장 석원명 대종사 호법부장 석대연 종 사 기획원장 석법상 종 사
포교원장 석혜운 대종사 포교부장 석혜통 종 사 사정원장 석법안 대종사 문화원장 석지명 대종사 문화1부장 석도산 종 사
문화2부장 석혜주 종 사
범패교육원장 석무겸 대종사 범패부원장 석월오 종 사. 석운오 종 사
교육부장 석대명 종 사 교육부1국장 석대덕 종 사 교육부2국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부산1종무원 석정은 김해종무원 석청해 거제종무원 석덕운 대구종무원 석청명
창원종무원 석범일 진주종무원 석덕오 전북종무원 석설산 마산종무원 석법경(法敬)

〈비구니원〉
비구니 원로회장 석효각 비구니원장 석청명. 부원장 석광명
석효각 석청명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석법오

〈위 원 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법률위원장 이창상 중앙예술위원장 조영선(무혜심)

◈ 입종안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명상수행 어때요?

명상전문가 강 선 희 중앙신도회 교육위원… 불교인재원서 2월 11일부터 특강

2011년 새해가 바뀐 지도 한 달이 훌쩍 넘고 어느새 설이 돌아왔다. 음력설이 되면 신년에 세운 지키지 못한 나만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곤 한다.

금주, 금연, 책 100권 읽기, 주3회 운동, 자격증 따기 등 이것저것 세운 계획에 '명상하기' 하나를 더 추가해보면 어떨까.

〈체험으로 읽는 티벳사자의 서〉〈체험하며 따라가는 명상네비〉의 저자이면서 수행의 달인이자 명상전문가인 강선희 중앙신도회 교육위원(49 · 법명 선명화)은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명상 수행을 하면 관절질환, 성인병 심지어 정신질환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얼굴이 거무죽죽해 건강이 안 좋아 보이고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사람들도 수행을 하면 박피를 했냐고 물을 정도로 피부가 맑아져요. 기미까지 옅어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에서 마련한 '강선희 명상교실'의 강사로 나선 그가 지난해까지 수강생 4기 80여 명에게 명상을 지도하면서 옆에서 보고 느낀 수강생들의 변화다.

꾸준히 명상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직접적 변화를 보이는 것은 물론 내적으로도 충만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강선희 교육위원은 "명상을 통해 악화된 건강과 부정적인 성격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잘못된 습관에 휘말려 살던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유지해 가는 변화를 겪는다. 명상이 삶속에 녹아 스며드는 과정들을 확연히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명상수행을 하면 좋다고 하지만 그 효과를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도 적어 사람들이 명상수행을 시도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강선희 위원은 "명상을 포함한 불교수행은 시간과 돈을 들여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주제를 찾아 하면 그걸로 수행이 된다. 예를 들어 '옴마니반메훔'을 계속 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강선희 위원은 2008년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불광출판사刊)를 출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자발적으로 명상카페(cafe.daum.net/bardo2)를 만들어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 탁마하는 모습을 수행일기로 올렸다. 강 위원은 수행일기에 댓글을 달아 면밀하게 수행 점검을 해 주면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강 위원은 이렇게 평범한 카페 회원들이 인터넷상에 수행하며 써내려간 일기를 엮어 최근 〈체험하며 따라가는 명상네비〉(불광출판사刊)를 펴냈다.

실제로 강 위원의 지도아래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일상의 어려움도 원만히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함께 수행하던 불자 2명이 최근 직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는가 하면, 한 수험생은 자신이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강선희 위원은 이같이 명상을 통해 얻는 소원성취는 궁극의 길인 깨달음을 얻는 과정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 상황에 휘둘리고 이끌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도 잘 풀리는 것"이라며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른 서원을 세워 바른 기도를 하게 되니 당연히 저절로 좋은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선희 교육위원은 재가수행자로 전 조계종 종정 서암 스님, 달라이라마, 까르마파 린포체, 우빤디따 사야도 등 국적을 초월한 제방의 선지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정진해오고 있다.

그는 능엄주 1일 400~500독, 위빠사나 수행 3년, 티베트불교 오체투지 10만 배, 만트라 10만 배 공양 5년 등 불교 수행이란 수행은 두루 섭렵한 자타가 인정한 수행의 달인이다.

>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
> '옴마니반메훔'만 외는 것도 수행
> "명상하면 깨달음·소원성취
> 육체·정신건강까지 좋아져"



효과를 기대하며 명상 수행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행을 해보도록 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사진은 '강선희 명상교실'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2010년 11월 6~7일 용인 법륜사 템플스테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습.

강선희 위원이 절에 다닌 지는 햇수로 26년, 본격적으로 수행에 임한지는 15년째다. 지금도 매일 새벽 3~4시에 일어나 아침기도, 요가, 호흡, 만트라 수행을 4시간씩 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수행에 전념하게 된 것은 1년 사이에 세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면서다. 한 사람은 명문학교를 나와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고, 또 한 사람은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간직한 노모였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동진 출가해 한 세기를 넘게 살다 간 노스님이었다.

최근 강선희 위원은 어린이 · 청소년 명상과정과 쉬운 불교명상을 알리는 데 관심이 많다. 그는 "어린이 · 청소년은 어른보다 몸이 맑고 마음의 때가 덜 묻어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몇 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맞는 명상과정을 따로 만들어 지도하고 싶다"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현재 개신교, 천주교에서 명상을 자기들의 종교 스타일에 맞추어 명상을 보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병원, 복지관 등에 쉬운 불교 명상을 보급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사업가는 회사 부도 후 불교에 입문해 불교를 배우며 남보다 빠르게 불교를 알아갔다. 그러나 새 사업이 번창하면서 절에 다니는 일이 뜸해지더니 병에 걸려 보통 사람들처럼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국의 여인상을 간직한 노모는 강 위원의 친정어머니다. 평소 절에 다니며 항상 '관세음보살' 명호를 찾던 어머니는 좌탈입망(坐脫立亡)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둘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 보살이 평소 자주 가던 사찰의 스님이 열반했다. 세수 백수를 넘긴 나이에도 수행에만 전념했던 스님이다.

강 위원은 "갑작스럽게 몇 달 간격으로 세 분의 임종을 지켜본 후, '왜 세 사람이 각자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승에서의 연을 마감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을 풀 수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 자신이 살아온 과정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생각만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곧 답을 찾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행'이었다.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고 옮기는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다 업(業)을 더욱 두텁게 쌓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15년간 수행에 진력을 다해온 강선희 교육위원은 그동안 홀로 수행을 하면서 정신적 ·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독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인재원에서 진행하는 명상교실과 인터넷 명상카페의 불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더욱 신심이 난다고.

그는 "명상교실에 오는 수강생들은 남들에게 터놓지 못하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한다. 서로 북돋아 주면서 수행을 점검해주니 더욱 신심 나고 재밌게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강선희 중앙신도회 교육위원은 불교인재개발원, 조계사 등 전국의 사찰과 기관, 기업 등에서 강의해 오고 있다. 그는 TV방송(KBS)을 통해 명상 중 뇌파를 측정해 선정의 깊이에 따른 뇌파의 흐름과 심신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 불교인재원 '강선희 명상교실'

모처럼 마음을 안으로 모아 고요히 명상에 들면 마치 무의식 속에 저장된 모든 업이 드러나는 듯하다. 강한 것에서부터 미세한 것까지 복잡하게 펼쳐지는 망상은 물론이고, 몸의 고통은 다리에서 허리를 타고 머리 꼭대기까지 그 수위가 점점 강해지며 마음의 평정을 가지려는데 더욱 곤란케 한다. 이것을 극복해 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수행을 멈출지 더 깊은 정진의 계기로 이어갈 지 갈림길도 되지만, 항상 바른 안목으로 삶을 리드하는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흐릿한 영혼으로 업력에 끌려 다니며 종으로 남은 생을 살 것인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몸의 고통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이다.

> 명상교실 2~4월 10주간 진행
> 기초·심화반, 직장인 참여가능

그렇다면 번뇌의 실체는 무엇이며 몸이 고통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장애물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고 마음의 고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교인재원에서 진행하는 '강선희 명상교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빠른 시간에 해결하여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고요를 누리며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수련을 진행한다.

불교인재원은 이번에 5기 수강생을 모집해 2월 11일~4월 15일 10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강좌는 총 10강으로 나눠 기초반은 매주 금요일, 심화반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7~9시 반도 운영된다.

강의는 참회, 자비, 선정 등의 주제로 명상에 들어가기 전 참회하는 법, 오체투지하는 방법, 자비명상 방법, 호흡하는 방법 등을 실제로 체험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불교인재원은 "이론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실제 체험을 하지 못했던 불자들이나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5-2428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호 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1월 10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3월 9일 수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1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3월 8일 화요일**

금강선원 기로원 입소자 모집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님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 (방1개, 베란다, 욕실)
◇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무구개락(無求皆樂), 구하는 것이 없으면 모두가 즐겁다”

정법을 알리는 국어사전 같은 불교 해설서 ‘선문선답’ 펴낸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 각 스님



현각 스님은 인터뷰 내내 자기 성찰을 강조했다. 다음은 스님이 현대불교 독자들에 전하는 신년 덕담이다. 불자여러분! 금년은 토끼해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숨을 굴을 세 개나 갖고 있다(교토삼굴: 敎兎三窟)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맹상군에서 유래된 고사입니다. 식객으로 있던 풍훤에게 빌려준 빚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풍훤은 빚을 받아오기는커녕 차용증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의 노여움을 산 재상 맹상군은 낙향 길에 올랐습니다. 온 백성들은 맹상군을 환영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왕에게 진정서를 내어 모함에서 벗어나 다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재(理財)에 밝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님이 물었다.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던데요.”

스님과 마주 앉은 이의 대답에 스님은 웃음을 지었다.

불교에서는 부처와 중생을 말한다. 흔히 중생은 부처와 상반된 말로 사용된다. 부처 아닌 것이 중생이라는데 정작 중생이란 무엇일까? 마치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처럼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이 최근 출간한 〈선문선답〉(한걸음더 刊) 上·下 편에는 이에 대한 답이 실려 있다. 중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스님을 찾았다. 선학자인 스님은 〈날마다 좋은날〉, 〈선학의 이해〉, 〈선어록 산책〉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선과 선학의 대중화에 힘써 왔다.

“줄기세포부터가 중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부터 도깨비, 선녀까지도 다 중생이에요. 중생은 생유(生有),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이고 존재 하는 모든 것입니다.”

현각 스님은 “요즘 사람들이 ‘중생’의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마치 구구단처럼 외워서 아무데나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

스님은 “요즘 많이들 불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진수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다. 부처님 정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법을 전하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선문선답〉이 출가자부터 불교교리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곁에 두고 위편삼절(韋編三絶, 가죽으로 맨 책 끈이 세 번 끊어질 정도로 읽다) 할 수 있는 국어사전 같은 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바램을 실어 스님은 〈선문선답〉 책머리에 “인절미에 덜 뭉개진 섞여있는 찹쌀 알을 옴쌀이라고 한다. 씹는 맛이 밥알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고소한 그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선문선답〉과 인연이 된 불제자들이 옴쌀의 진미를 느끼듯이 불교교리를 정확하게 익히고 고소하게 음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적기도 했다.

책은 스님이 수년간 불교방송 ‘신행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방송된 원고를 재정리한 것이다. ‘신행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에게 받았던 ‘선문’ 즉, 좋은 질문들에 대해 사족 없는 대답인 ‘선답’으로 답했다.

〈선문선답〉 상편은 수행과 공부, 하편은 고승과 경전으로 구성됐다. 어렴풋이만 알고 정확한 뜻을 몰라 고민하던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151꼭지의 질문에 대한 선학자의 명쾌한 답이 담겨 있다.

궁금증이 더해진 기자가 “불보살의 ‘가피’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가피(adhiti-sthante)는 불교도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adhiti’는 ‘스승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stha’는 ‘머무르다’라는 말이고, ‘ante’는 ‘들어가다’ 혹은 ‘중간’을 뜻합니다. 종합하면 ‘나의 생각이 스승이 가르쳐준 곳에 머문다’는 뜻이 됩니다. 〈법화경〉의 호념(護念)이 가피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피는 불보살의 위신력을 받는 것이며, 불보살이 중생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부여해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현각 스님은 한역에서 놓치기 쉬운 용어를 산스크리트어의 어원까지 밝혀가며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가피와 관련한 당 태종과 현장 법사의 대화를 수록해 읽는 이의 이해를 도왔다.

당 태종이 말했다.

“짐이 가람보호를 열심히 하는데, 교단이 문란하니 신심이 떨어집니다.”

현장 법사가 당 태종에게 말했다.

“곤륜산에 옥(玉)이 있다고 하지만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고, 여수에 금이 있다고 하지만 기와 조각과 자갈도 있습니다. 흙과 나무로 나한을 조성했지만 공경하면 복이 생기고 쇠와 구리로 부처님을 조성했지만 파괴하면 죄가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용이 비를 주지 못하지만 기우제는 반드시 진흙용에게 지내는 것입니다. 범승(凡僧)이 비록 복을 주지는 못하지만 복을 닦으려면 반드시 범승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 끝에 태종이 활연대오했다. 태종이 말하기를,

“짐이 이후로는 비록 사미승을 보더라도 부처님 공경하듯이 하겠습니다.”

현각 스님은 “불교에서 마음을 심전(心田)이라고 표현한다. 마음은 부처의 종자가 심어져야 할 저장고라는 뜻으로 심지(心地)라고도 한다”며 “마음이 선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지가 오곡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내 마음밭을 잘 일구고 가꾸는 이에게 불보살의 가피가 있지, 자꾸 남을 탓하거나 비방만 하는 이에게는 가피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어제 밤 꿈은 찰나의 꿈이고 인생은 긴 꿈이다”고 말했다. 아침에만 잠깐 피는 버섯인 ‘조균’은 밤·낮이 무엇인줄 모른다. 매미도 여름 한 달만을 알고 봄, 가을, 겨울을 모른다. 인간도 똑같다는 것.

> 禪 수행은 부모님 계시는 고향가는 여정
>
> 멀고 힘들어도 도착하면 푸근하고 안락

스님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만 전부 인줄 안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진행 중인 연구실로 비유하자면 이 교수 연구실은 많은 연구실들 중 한 곳이고, 교수회관도 캠퍼스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 스님은 “세상은 하나의 큰 꿈 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남가일몽(南柯一夢) 같은 짧은 인생에서 올바른 경전 공부를 통해 미망의 세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각 스님은 “인간은 결국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흩어진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본디 한 덩어리”라고 말했다. 스님은 “내 몸도 자연에서 왔다. 무심히 밟는 저 땅도 한때는 나의 몸의 일부였다”며 “무엇 하나 소홀히 여길만한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공존공생하는 삶을 강조한다. 스님은 “지리산, 속리산 깊은 곳에 쓰러져있는 주목은 쓰레기가 아니다. 개미도 살고 굼벵이도 사는 곤충들의 서식지이다. 나무는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주목이 산속에서 이타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은 인간 본성을 깨운다. 평생을 선학자로서 선 연구에 매진한 학자는 선을 무엇이라 말할까? 현각 스님은 “선 수행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가는 여정과 같다”고 말했다. “가는 길은 산천초목을 다 지나가니 멀고 힘들지만 여정이 끝나면 따뜻하고 푸근한 고향집에 도착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스님은 “고생스럽기만 하다면 왜 선수행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스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새해에 ‘금년에는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원한다”면서 “내 바탕이 닦이지 않았는데 어찌 부처님이 내 소원을 전부 들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부처님 전에서는 ‘올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하고 발원이 아닌 다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현각 스님이 행복한 삶의 방법을 제시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또, 무구개락(無求皆樂), 구하는 것이 없으면 모두가 즐겁다.”

현각 스님은 자기 성찰을 강조했다. 수행이 잘되려면 참회기도가 먼저이듯. 한 해를 잘 살려면 지난해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스님은 베토벤이 자신의 곡을 쓰다가 ‘이렇게 써야만 하나?’ 하며 악보 위에 적었다는 ‘must it be?(꼭 그래야만 하는가)’를 예로 들었다. 스님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여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긋하던 차는 다 식어버렸다. 기자는 어느새 스님의 학생이 돼 있었다. 스님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다. 스님의 자상한 법문은 〈선문선답〉 책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교정은 눈 치우는 사람들로 붐볐다. 무심히 쌓여있는 눈도 나의 분신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밟고 지나가기가 어려웠다. “낮은 곳에 있기에 행복할 수 있다” 현각 스님의 말씀이었다.

현각 스님의 선문선답 上·下 | 현각 지음 | 한걸음 더 | 1만 2000원, 만원

글=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이 생에 깨달아 성불하는 활인참선

재가자 삼매체험 수련회 · 단기출가

봄산철 정진대중 모집

체계적 공부 지도

단식 · 참선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면역력 강화

청소년 · 대학생 · 일반

*수 련 회 : 5일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 2월 21일 ~ 25일

· 3월 25일 ~ 29일

- 물만 마시고도 당뇨병 · 고혈압 · 성인병 · 난치병을 퇴치 예방 가능
- 면역성 노화방지 · 아토피 · 생리관계 · 요요현상 없음
- 공부힘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어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음
- 장애에서 벗어나게 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 번지

☎ 1644-5266,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활 인 선 원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워크숍

“인력과 재정 확충이 불교단체 모두의 공동과제”

1월 27~29일 제주도서, 재가연대·경실련·실승·에코붓다 등 23개 단체 실무자 워크숍… 교육·재정자립 등서 연대 필요성 공감

(준)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집행위원장 정웅기)는 1월 27~29일 제주도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공동의제 개발 및 불교사회역량 강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노력하기로 했다.

워크숍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불교교육원,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맑고향기롭게광주본부,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보리, 사찰생태연구소, 에코붓다, 자비신행회,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운동본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밝음공동체, 조계종 종무원조합, 조계종총무원사회부, 참여불교재가연대,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포교사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해뜨는다문화가족 등 23개 단체 실무자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웅기 집행위원장 기조발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수평 · 개방 · 인적 연대 단체다. ‘무아’ 사상에 가장 충실한 실체 없는 단체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열정과 의지를 수평적으로 모아나가겠다. 모두의 이익이 되는 단체가 되겠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1월 28일 제주도 동양콘도에서 기조 및 활동과제를 발표했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수평적인 인적 연대를 통해 불교계 사회참여 범위를 확대할 의지를 촉구했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의지와 제안에 따르는 조직이 운동하던 시대는 끝났다. 상명하복하는 조직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의 미래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과제이자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일방적인 조직체계와 단독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개별단체의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 기부를 통한 재정자립 등의 측면에서 연대활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불교단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3차례 정도 시도도 있었지만 네트워크는 대부분 상부조직에서 집행자를 선정하고 성명서를 쓰고 발표하는데 그쳤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과거에 시도됐던 네트워크의 실패 원인은 ‘소통의 체계’가 아니었고 종단 안팎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아직까지 준비위원회 형태인 것은 단체의 규모 확장 보다는 조직간 긴밀한 관계형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관심과 지지, 노하우의 전수가 중요하다”며 “네트워크는 실체가 없는 무아에 충실한 단체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목표는 △공동의제개발 △청년인력 및 중장년 인력 참여 유도 등으로 신규인력 육성 및 강화 △현안공동대응으로 나뉜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공동의제개발이다. 정 집행위원장은 “불교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인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 국제구호, 사찰생태보존, 종교평화 및 교류, 이주민, 여성문제 등의 활동을 모으면 불교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에 비해 활동분야가 적고 △전문성이 없으며 △불교 안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불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시킬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람 간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갈 뜻을 밝혔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공동의제개발에 대해 “지금부터 1~2년 사이에 어떤 사회문제를 불교계에서 불교식으로 생각해 불자들에게 효과적이고 단순한 실천윤리로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공동의제 선정과 확산을 위해서 공동의제 개발에 대한 과제 부여 △박람회를 열거나 사찰 신도회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사회역량확대를 위한 과제를 ‘인력’와 ‘재정’ 확보로 압축했다. 단체는 시민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인력 개발, 사찰의 중장년 인력 참여 유도를 통한 신규인력 육성, 활동가에 대한 공동 교육 및 연수를 통한 기존 인력 운영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인력과 재정의 밭을 넓히는 일이 불교단체 모두의 공동과제”라고 말했다. 인력과 재정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는 사찰과 종단 간의 긴밀한 관계를 펼쳐갈 계획이다.

정 집행위원장은 “최근 봉은사, 조계사 등 사찰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찰에서는 신도들의 자발적 사회운동 참여 의지가 보인다”며 “이미 조계사 불교대학의 신도들은 참여 의사를 전해온 만큼 가장 유력한 공동의 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신도들이 불교시민단체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해 신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제를 연구 · 교육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찰에서 불교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동설명회나 박람회를 개최해 공동의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 카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긴밀한 소통의 관계도 맺는다. 페이스 북을 통해 개인소식을 주고 받고 카페에서는 각 단체의 일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공유할 의제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0~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게 된다.

네트워크는 종단에도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과거 각 사찰에서 불교시민활동 기부금을 사찰 분담금에서 제외하는 불교사회활동 진흥법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은 종단이 선언한 불교자주화 문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불교 자주화 선언도 적당한 타협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없다면 종교 편향적인 정권 내지는 세력,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 재탄생하고, 정권이 미국 군부세력과 결탁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결국 불교사회운동은 물론 불교전체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위기의식도 네트워크 구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구심점을 찾지 못한 민주화가 새로운 통합구조의 형태가 되고 있다”며 종교와 종교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앞으로 더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자주화 선언은 절대 의미 없는 움직임이 아니다. 종교가 정치 경제 언론 사회 문화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변화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종단 보조 및 비판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요구될 때가 올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 때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 조계종 집행부는 여타 집행부와는 달리 불교시민사회에 긍정적인 자세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수용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안팎으로 통하는 현안에 대해 긴급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다.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활동은 밭을 넓히고 스스로 호미를 쥐는 일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네트워크의 책임감 있는 활동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단위별 분담금을 반드시 납부하자는 결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상언 기자 kemichimo@gmail.com

“활동가 최소 생계 보장해야”

비전 및 활동 과제 발표 이후 토론도 함께 마련됐다. 토론에는 활동가들의 기초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급여(120~150만원), 근로자로서의 기본 권리 및 교육, 4대 보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문제 해결은 단체에 있다는 점에서 열악한 사회단체의 현실을 해결할 방안은 찾지 못했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불교시민사회활동 지원 기금 등을 마련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단체는 직무와 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 교육도 실시한다. 각 단체에서 뛰어난 직무 단체에 파견 연수와 ‘불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시민사회 활동가로서의 삶의 자세나 행동원칙’에 대한 사회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실무자로 파견 근무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근자 1명 외에 6~12개월 각 단체 활동가 2~3명이 파견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된다.

단체들은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은 무엇인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사회단체인가 신행단체인가?”등 정체성에 대한 토론도 함께했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내적 수행과 사회운동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인 역할을 잘 찾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을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다. 불교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사회 속에서 불교적 신념을 실천하고자 모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승가학과 학인 모집요강

교 육 과 목		교 수
불 교 학	초기불교사상. 대승불교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중관사상. 유식사상	마정 스님 한영애 교수
포 교 학	포교론. 불교경제사상	동국대 박경준 교수, 홍사성 교수
심리치료학	심리치료학. 기공치료학	혜조 스님. 도선 스님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덕치 스님
선 학 과	임제록. 신심명. 증도가	마정 스님
법요수의과	제 법요 및 승가교육 특강(수강자 선택과목)	대허 스님. 원돈 스님

1. 모집대상 : 승려. 출가예정자. 재가자(누구나)
2. 모집인원 : 약간 명
3. 개 강 : 3월 4일 (매주 1일 5교시~6교시)
4. 특 전 : • 장학금지급. 점심공양제공 • 재가자는 법사증 수여 • 출가 지원자는 수료 후 사미계 수계 • 각종 법요의식 지도 • 사찰운영지도 및 행정지원 • 기숙사 입방가능 • 선원(안거) 입방 자격 부여
5. 접 수 처 : 서울 02) 496-3952~3 . 교무처 031) 676-0908
6. 행자모집 : 고졸이상 남. 여 연령구분 없음. 무문총림 영평사

龍鳳學林 중앙불교대학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활동가들의 목소리 말 · 말 · 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 대부분은 실무자다. 실무자들은 1월 28일 조별 회의를 통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비전과 활동과제를 발표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 기부문화 개선해야

불교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처절하게 생활하고 있다. 봉사나 보시의 개념으로 활동가에게는 돈을 너무 적게 준다. 인재육성을 말하는데 최저생활비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활동가들은 "젊은 활동가에게는 빨리 나가라"고 권유한다.

사찰이나 불교관련 단체는 봉사, 보시의 개념으로 저임금으로 부려먹는다. 일할 수가 없다. 89~90만원 받고 일하면 젊은 사람 살아남지 못한다.

월급부터 제대로 줘야한다.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130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는 보장돼야 한다.

기부문화를 개선하자. 스님 생신 때에 신도들이 봉투를 건낸다. 종무소 직원이나 활동가들은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는데, 스님은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스님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차로 다니고, 기름 값을 조금 아끼면 활동가들의 4대 보험은 충분히 해결된다고 본다. 스님에게 돈 드리지 말 것,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종단에 의지하지 않아야

개별단체들의 고유영역이 있지만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개별단체는 역량이 부족하고 한계를 느낀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사안별로 공유하면 단체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각각의 단위사업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교자주화 등의 이슈와 정책 사안들을 종단에서 먼저 제시하고, 단체가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길 바란다. 단체가 종단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할 사업의 시작부터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단과 단체의 논의구조와 형태를 상시화하고 단체들의 역할과 신뢰가 중요하다. 불교가 힘을 얻고 신뢰를 얻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조직화, 상시화를 위한 사무국이 있어야 한다. 또,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급여를 종단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여건이 어렵더라도 자생적 자주적인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 오래된 단체의 노하우를 신생단체, 조직화 되지 못한 단체에 지원, 기술적인 지원과 멘토 역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안이 있을 때보다는 상시적, 정기적인 회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체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 정도에서는 회의를 가져야 한다. 운영위원회 정도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결정되기 바란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활동가는 그대로다. 양적인 성장은 있어 보이지만 질적인 성장은 없었다. 질적인 성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변화를 위해 불교단체의 새로운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기존방식을 탈피한 젊은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분을 꾸준히 노력해 해결책을 찾자. 논의의 장을 만들고 젊은 층들이 믿을 수 있는 포교가 필요하다. 미디어를 통한 포교로 젊은 사람을 유입하자.

#네트워크의 정체성 여전히 의문

불교시민사회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NGO인가 신행단체인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별단체의 수위가 다르다. 아우를 수 있는 연대가 돼야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연대활동을 바라본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의 필요성은 갖고 있다. 워크숍 단계에서 운영비를 뽑고 운영을 할 만큼 성숙해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 정체성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없었다. 서울 지역 외에 확산되려면 내규, 활동 목표와 비전 등이 준비돼야 한다.

#활동사안에 스님 영향력 축소시켜야

활동 사안 결정에 스님들의 영향력을 축소해야한다. 불자로서의 역할과 활동가로서의 역할 갈등이 있다. 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신뢰와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상근자가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한다. 사안에 대해서 공유가 없었다. 각 단체의 이익 우선이었다. 네트워크 활동에 가이드라인, 현실적인 실천지침,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이 회의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 4대강 사안에 논리성이 부족했다. 논리적인 대응과 교육이 필요하다.

'스님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스스로 타파해야한다. 단체의 고정관념을 스스로 타파해야한다는 것. 승가에 대한 올바른 위상과 정립이 필요하고 단체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단체의 현실을 위해 사안별 연대가 필요하다. 내부적 이슈에 대해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한다.

#젊은 층도 사회문제에 접근케 해야

대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들을 기회보다는 살아갈 경제적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 인권 평화 경제 분야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의 역할은 공감을 얻고 공유를 통해 키워가야 한다. 스님은 후원자가 돼고 재가자 중심의 단체로 자리잡아야 한다. 단기적인 단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모임으로 성장해야 한다.

#총무원장 스님의 상황 판단 정확하다

총무원장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공동이 원하는 것, 한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활동을 하고 네트워크는 뒷받침해야한다.

의제 선정에는 사회적 의제와 불교적인 의제로 나눠 가야한다. 사회주제에 큰 포지션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

#네트워크 쉽지 않을 것

각 단체의 개성이 뚜렷해 네트워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 설립을 위해서는 의제가 필요하다. 중요의제를 발표 후 교육지침과 로드맵이 형성돼야 한다. 현안 발생에 대해서도 실무자들도 내용을 모를 때가 많다. 현안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어떻게 운영될까?

그동안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4대강 생명살림' 연대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알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조계종의 봉은사 직영사찰선정 과정의 문제에서도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연대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종단과 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트는 2010년 하반기에 조직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불교시민사회는 공동의제로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불교사회역량 강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연구개발해 나간다. 또 젊은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사찰의 중장년 인력 참여 유도 등으로 신규인력 육성, 활동가 공동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인력 육성에 나선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단체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에코붓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망,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등 7곳이다.

예산은 봉은사 등 사찰에서 월 정기지원을 받고 단체별로 부담한다. 공동대표단체는 년 200만원, 집행위단체는 년 100만원, 회원단체는 년 30만원 분담금을 내야한다.

2011년 중반까지 장재원 국장 1명이 상근하며 추후 2명까지 상근자를 둘 계획이다. 사무실은 수운회관 내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불교자주화 성명발표

정 은 경 아시아밝음공동체 자원활동가

"종단의 다짐과 선언이 한 순간의 공분이나 타협의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내면의 성찰을 통해 불교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실청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1월 28일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 결사'의 담화문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헌법에 명시된 민족문화 창달과 문화유산 계승에 관한 국가적 의무에 대해 그동안 불교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왜곡된 관행을 만들어 온 국고지원의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으로는 사찰의 투명한 재정집행과 종단 차원의 '불사심의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불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높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창립을 앞두고 "불교 자정과 쇄신을 위한 결사에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종단 내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고귀명수(鼓龜命數 : 육임운명판단법)"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曉史活人天役集 : 육임종합 CD프로그램)" 2011 완결최종판 안내!

신용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보 · 내정 · 신분 · 귀신 · 부정 · 산소탈등의 정확도 · 편이도 · 효과성이 백미입니다. 미리 알고 먼저 말하게 되는 명품(名品)입니다.
http://한국육임학회 팝업에 '**활용효과성**'을 위한 아래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 완결최종판과 '**고귀명수**'의 각 설명 강의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완결 최종판 안내



1. 정 가 : 5백만원
2. 기 능 :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3. 업그레이드내역 :

가. 승인(인증)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 · 녀 구분 및 어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1). 근친상간자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위해 해당 천장 분별과 낮 · 밤 시간 구분 표시를 철저히 했음.
2). 남녀삼각관계(一男二女 · 一女二男)와 불비 · 부족관계에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三傳三合 / 四課 全 一 陽 · 陰)에 대한 채용 · 불채용의 적용을 명확히 했음. 이때 남자 또는 여자가 질투로 남자 또는 여자를 살해하게 되는 대상 남녀의 구분도 엄중히 했음.
3). 교동(狡童 : 남자가 타인의 부인을 유혹하여 색정거래 하는 것)과 음일(淫溢 : 여자가 남자를 적극 유혹하여 가출하려는 것)의 낮 · 밤 시간 판단구분을 철저히 했음.
4). 부인이 간사(姦私)로 남편을 살해하는 대상 여인도 엄중히 구분해 적시 했음.
5). 데릴사위 신분임을 철저히 구분해 적시했음.
6). 처에 의한 소송을 당하는 남자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7). 부부이별 하는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표시 했음.
8). 상신(傷身) 또는 불구(不具) 여부가 본인 · 처첩 · 자녀 · 부모 · 형제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엄중히 표시 했음.
9). 혈광사의 대상과 암매사의 대상을 양일(陽日)과 음일(陰日)로 분명히 구분시켰음.
10). 고등(사법 · 행정 · 외무 · 변리 · 회계)시험과 대학입학 시험 합격자 및 선거 당선자 여부를 별도로 표시 했음.
11). 12귀신(作事鬼 病鬼) 중 '여귀(女鬼)' '음귀(陰鬼)' '가택귀(家宅 鬼)'의 종류를 새로 보강 했음.
12). 12부정(邪崇)중 부정침범부위(신변 · 가택 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태에서의 '뱀굴' 여부 · '복골' 여부 · '水듬'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 木 · 火 · 土 · 金 · 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후회하는 일인가?
사) 밝혀도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 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 · 2 · 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 · 보강 · 삭제 시켰으므로 완결최종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4.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I · II · III CD 프로그램"의 교환 요구가 많아 2011.1.24-2.15일까지 교환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교환가격	위 I	90만원
	위 II	70만원
	위 III	50만원
	위 2010완결판	30만원
■분개(分個)육임산책 CD		150만원
■분개(分個)육임래정비법		100만원

www.taotemple.net

=.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문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섭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해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 들이 또박 또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 · 질병 관계 / 직업 · 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겸용) / 배우자 성정 · 용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부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 ·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 친 · 구(親 · 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 · 길흉관계 / 띠별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운명 관계 / 초년 · 중년 · 말년 길흉 및 육친 불행관계 / 초 · 중 · 말년 12작사귀 · 12병귀 · 침범관계 / 신변 · 가택 · 초 · 중 · 말년 12부정 침범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겠는가? 관계 / 묘지 속 '뱀굴' '복골' '水듬' 관계 / 남녀 혼인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체(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 행로(行路) 관계 / 살인 · 색정 · 생사별 · 사고 · 사건 관계 / 12궁위(本命 · 財 · 兄弟 · 田宅 · 子息 · 奴業 · 夫婦 · 病危 · 遷移 · 官職 · 老後福德 · 相貌) 길흉 관계까지,** 육임의 장점인 정확도 · 신속도 · 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정가 350만원 / 순별 全 6권 / B4규격 / 미색모조지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즉 복 · 명(卜 · 命)을 합쳐 '명운(命運)'과 '당면사정(當面事情)'들이 모두 한 면 한 눈에 들여다 보이게끔 구성시킬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상(日常)을 떠난 세월'과 '육임에 대한 역사성'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해 낼 작업이었고, 애제자 귀옥자 乙山의 외지조응(外之助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귀명수'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 · 복 활용서'로 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으로까지 이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흑 · 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잣대'이면서 '칼'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 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위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辛卯 季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진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 · 학습서들 입니다. 아래 활용서들은 육임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오행술을 몰라도 바로 활용하여 효과를 얻게끔 한글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도사에게물어봐(2011 증보판)
-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2011 개정판)
- 육임풍수(2011 개정판)
- 육임 1년신수비결(2011 개정판)
- 육임래정비법(증보개편판 : 휴대용 좌정용)
- 도정기(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 고품격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감동심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 · 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전서(2011 개정판)
- 본 효사활인 천역집(2011판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 CD(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변집부록(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2011 개정판)

※ 학습서
- 효사육임강론(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 上권 : 육임각법종합구성 / 2050쪽(학습용)
  · 下권 : 육임서 역대저자 머리글 / 육임대요문답/ 사과삼전보기요령/항목별주요신장제시 /사과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 초사 / 국수해설 / 항목별성부단정 수록 / 2015쪽(임상용)

육임강의「도술(방법실기)반」접수받습니다.

궁 익 법 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예금주 : 육임나라(주)]

※ 카드결제 가능함 ※

속리산은 선사가 머물던 곳… 돌에 그 시작과 끝을 새기다



㊾ 세속을 떠난 세속 속리산 법주사(상)

세속(世俗)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사전에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의 앞뒤를 바꾸어 속세란 말도 자주 씁니다. 사전에서는 속세를 불교용어로 구분하고 '불교의 세계가 아닌 일반사회를 일컫는 말'이라 풀이합니다.

세속이든 속세든 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모여 사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 산다는 것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서로 얽혀 복잡한 관계들을 형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관계란 개인적인 갈등에서부터 민족이나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먹고 자는 등의 기본적인 것부터 명예와 권력과 재력 등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냅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세속(속세)을 벗어난다는 것은 욕망에 끌려 사는 인간 세상을 벗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왜 벗어나느냐? 욕망의 근원을 끊고 순수한 인간의 본연을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본연은 불성(佛性), 부처의 성품입니다. 누구에게나 갖춰진 부처의 씨앗을 찾아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떠나 수행하는 것이고, 그 부처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비추어 욕망의 암흑에 덮인 세상을 밝히고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에도 세속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에 들어가도 거기 사람이 있는 한 세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을 떠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세속 아닌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 어디이든 그곳이 세속을 떠난 곳입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이 도를 멀리하려 하는구나.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는데
사람이 산을 떠나려 하는구나.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은 속리산(俗離山)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세속을 떠난 산이되 세속과 더불어 있는 산, 사람 사는 세상에 있되 사람 사는 세상을 떠난 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암시는 생각할수록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상징되는 도는 늘 변함이 없지만, 사람의 인심과 풍속은 늘 변하는 것이어서 산과 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이 머무는 절이라는 뜻의 속리산 법주사 일주문.

법주사(法主寺). 법이 머무는 절이란 뜻인데, 어디 법이 머물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서는 신라의 의신(義信)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절 지을 터를 찾아다닐 때 흰 노새가 이곳에 이르러 발길을 멈추고 울어서 살펴보니 과연 비범한 곳이어서 절을 짓고 부처님 법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여 법주사라 이름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시대배경이 맞지 않는 설화지만, 이 절이 갖는 신앙적 의미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이 머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을 구하고, 그 법대로 살고, 그 법을 전하는 간절한 염원이 서린 곳이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여 성취하고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되돌리는 종교니까요. 이렇게 산의 이름과 절의 이름을 생각하는 동안 오리 숲을 걸어 수정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흰 눈이 두텁게 덮인 숲길의 끝에 작은 비각이 하나 있고 그 옆에도 돌난간 속에 비가 두 개 서 있습니다. 비각 안에는 '속리산사실비(俗離山事實碑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가 서 있습니다. 1666년(조선 현종7년)에 세워진 이 비석은 속리산 수정봉 위에 있는 거북바위가 중국의 재물을 조선으로 불러들인다는 속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의 글을 지은 사람은 유명한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고 글씨는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1672)입니다. 우암과 동춘당은 당시 노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예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 유학의 거장들이 글을 쓰고 글씨를 써서 수정봉 거북바위 이야기를 비석으로 남긴 것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석의 높이는 163cm로 아담합니다.

머리에 눈을 덮어쓰고 돌난간 안쪽에 서 있는 비석은 '벽암대사비(碧巖大師碑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1호)'입니다. 보은 출신인 벽암 각성(碧巖覺性:1575~1660) 스님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호남지방에서 활동한 승병장으로 서산 대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승군을 일으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남한산성 축성을 3년 동안 지휘했으며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종남산 송광사, 속리산 법주사를 중창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난극복의 최전방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고, 선풍진작을 위해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벽암 스님의 부도와 비는 생시에 중창에 힘을 기울인 쌍계사 화엄사 송광사 법주사 등 네 사찰에 조성 됐습니다. 법주사에는 부도는 없고 비만 남아 오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1664년(조선 현종5년)에 세워진 비의 본문은 춘추관수찬관을 지낸 정두경(鄭斗卿:1597~1673)이 썼습니다. 내용은 현종 4년(1663년)에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화엄사의 비문과 비슷합니다.



벽암대사비와 속리산사실기비각에는 국난극복과 선풍 진작에 힘쓴 벽암 대사의 면모가 기록돼 있다.

임란 때 승병장 하던 법주사 중창주 벽암 스님
쌍계사에는 부도 있어도 법주사에는 비만 남아

자식이 없어 칠성신에게 지극히 기도를 한 어머니가 꿈에 오래된 거울을 보고 임신해 대사를 낳았다고 합니다. 9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세에 설묵 장로 앞에서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었는데 어느 날 부휴(浮休:1543~1615) 대사가 스님의 그릇을 알아보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부휴 대사는 서산 대사와 함께 부용영관(芙蓉靈觀:1485~1577)의 선맥을 이은 당대의 걸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용의 법맥이 부휴와 서산으로 이어졌고 부휴는 벽암에게 서산은 사명당 유정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벽암 대사는 사명 대사와 같은 항렬인 셈입니다. 비문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한 토막 전합니다.

선사가 일찍이 몇 명 사문과 함께 밤길을 가는데 큰 호랑이가 포효하며 나타났다. 여러 승려들이 두려워하였으나 선사는 웃으면서 "이놈은 다만 우리를 위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했다. 20여 리를 갔는데 호랑이가 따라 오다가 절 문에 이르렀다. 선사는 호랑이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멀리서부터 와서 서로 헤어지게 되니 너 또한 애썼다"라고 말했다. 호랑이가 선사의 주위를 세 번 돌고는 거듭 울부짖으며 떠나니 절의 승려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다. 송운 유정(松雲惟政)이 부휴 선수(浮休善修)에게 편지를 보내어 "법을 이을 사람을 얻었으니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문에는 명나라 장수 이종성이 대사를 보고 4세기 때의 서역의 고승 불도징(佛圖澄)과 동진의 대학승 도안(道安)스님과 같은 분이라고 평한 일화와 스승인 부휴 선사와 함께 무고로 옥에 갇혔다가 왕(광해군)이 친히 국문하고 풀어주며 선물을 하사했던 일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문에는 벽암 대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맞아 떨쳐 일어나 승군을 조직해 구국의 횃불을 밝혔던 일들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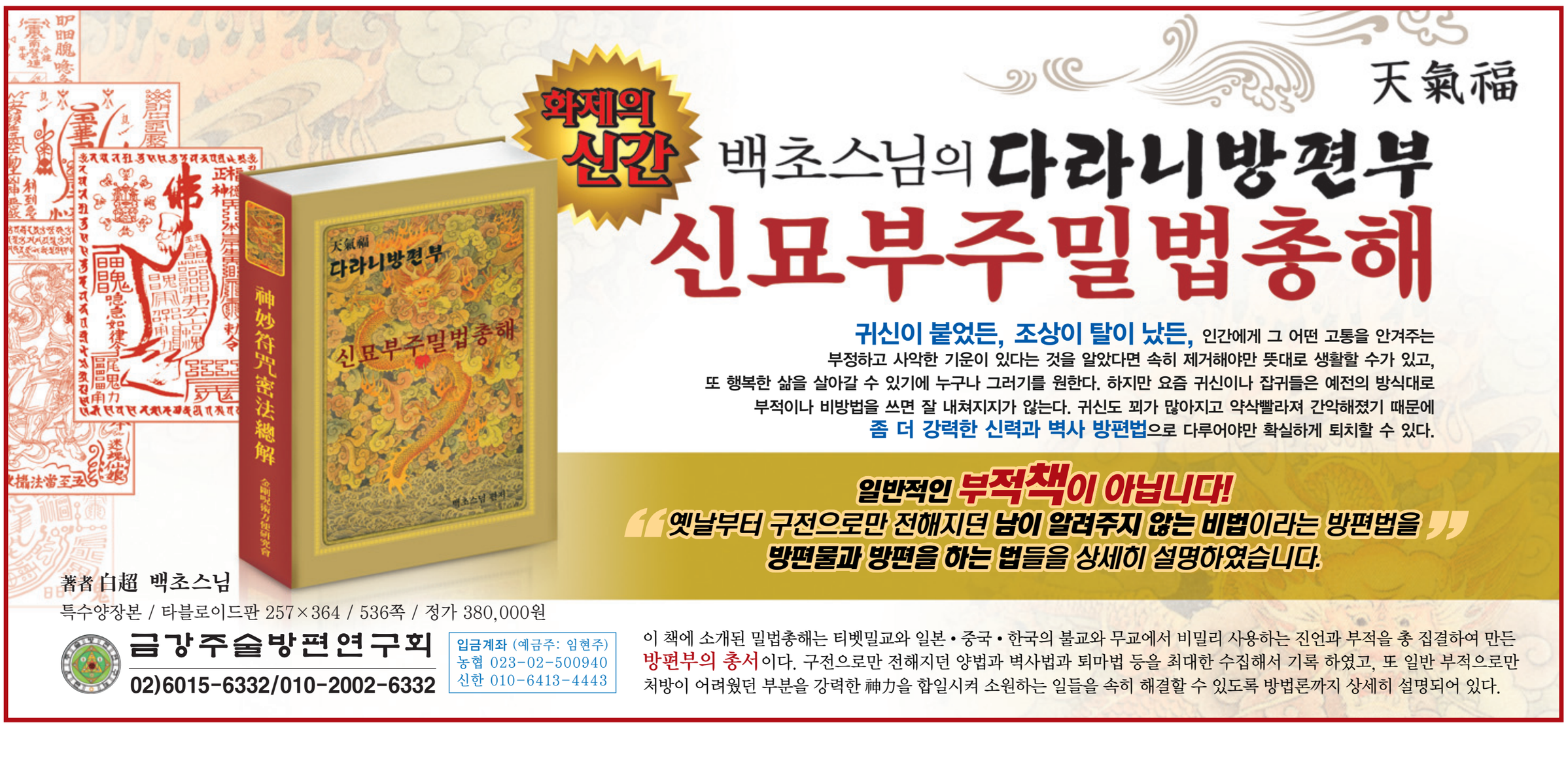
어느 시대나 난세(亂世)입니다. 그것은 인간 욕망이 본래의 인성을 더럽히고 자연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난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 보이신 성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부처님의 법은 그 모든 성현들의 지혜를 총섭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머물러 지키는 법이 있으면 나아가 전하는 법도 있으니 부처님의 법을 닦고 전하는 일은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습니다.

법주사 수정교를 건너기 전에 만나는 벽암 대사의 비는 한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간 수행자의 면모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래된 거울을 꿈에서 보았듯이 오늘의 우리 또한 오래된 거울을 보듯 벽암 대사의 생애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문의 대미를 장식한 비명을 읽어 봅니다.

고려 말에 태고보우(太古普愚) 공(公)이 있어
중국에 들어가 불지(佛旨)를 얻고 해동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선풍이 크게 떨쳐져
스님들이 팔방(八葉)에서 고승(龍象)이 되기에 이르렀다.
괴로움의 바다에 배를 띄워 중생을 구하였고
그 본원을 본받으니 실로 임제(臨濟)의 정종(正宗)이로다.
높디높은 속리산은 선사가 머문 곳이니
돌에 새겨 그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한 알의 좁쌀도 아끼고 한방울 물도 옆사람에 튀게 말라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 펴낸 철 우 스님 “있는 계율도 없애는 건, 불교 자신을 없애는 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더니, 최근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기술은 발달하지만 사회는 날로 복잡해져만 가고, 생명 경시가 만연한 세태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이런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 혼란을 느끼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1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난 철우 스님(사진)은 “이런 어지러운 사회에 ‘계율’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빨리어 경전에는 계율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계율은 악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이며, 훌륭한 갑옷이다. 어떤 삶이든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이끄는 충실한 안내인이다.”

#계율은 스님뿐만 아닌, 불자들도 함께 지켜야

“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조그만 불씨가 만 리 들판을 태우고 한 방울 물이 견고한 돌을 뚫는 것과 같으며, 작은 것이 많은 것이 되고 적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스님은 최근 구제역 파동을 두고 “우선 불자들이 먼저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죽은 가축을 위해 천도재만 지낸다고 해서 불자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현재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 천도재를 지내거나, 피해 가족들에게 기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불교계만큼은 좀 더 진실 된 마음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고기를 먹지 못해 안달”이라며 “삼보일배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삼보일배를 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이권이 없다고 생각하니, 다들 먼 나라 이야기처럼 구경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율은 단순히 스님들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자들 역시 계율에 대해 알고,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철우 스님은 “계율이 생겨난 이유는 개개인의 수행을 위해, 교단의 청정을 위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그리고 정법이 영원히 머무르게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며 “불자들은 마땅히 계율을 지켜야 하며, 파하더라도 바로 참회하고 다시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 불자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불자라 할 수 있으며, 교단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작은 규칙의 실천이 결국 삶의 행복

사미와 사미니가 비구, 비구니가 되려면 가장 먼저 사미십계(沙彌十戒)와 그 24가지 위의(威儀)를 배우고 행해야 한다. 사미가 지키는 계율을 사미율의요약(沙彌律儀要略)이라 하는데, 사미는 사람을 뜻하고, 율의는 법(法)을 말한다. 넓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율의라 한다. 사미는 인도의 조물신(造物神)인 범천신(梵天神)이 지은 범어(梵語)이다. 범어는 고대 인도의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말로, 풀어보면 ‘쉬고 자비하다’는 뜻이다. 나쁜 생각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세간에 물드는 짓을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인데, ‘부지런히 힘쓴다’ ‘열반을 구한다’라는 뜻도 있다.

> 계율은 악을 막는 울타리며,
>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 훌륭한 갑옷이다

철우 스님은 사미율에 대해, “사미율은 재가자들도 모두 읽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속의 중생들은 이러한 계율을 하나씩 다 이행하며 살기는 힘들다. 스님은 이에 대해 “다섯 가지의 기본 계율만 일상생활에서 지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섯 계율이란 첫째,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지 말라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 등 이다. 특히 불살생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계율이다.

“부처님은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말씀하시길, 살생에 열 가지 죄가 있으니, 첫째는 항상 독을 품어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음이요, 둘째 중생들이 증오해 눈으로 기쁘게 보지 않음이요, 셋째 항상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생각함이요, 넷째 중생들이 두려워하기를 호랑이나 뱀 보는 것과 같음이요, 다섯째 잠들면 두렵고 깨어나고 편안하지 못함이요, 여섯째 항상 악몽에 시달려 질병이 많음이요, 일곱째 목숨이 다할 때 미친 듯 정신적으로 두렵고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음이요, 여덟째 단명을 심음이요, 아홉째 몸이 무너져 목숨을 마칠 때에는 지옥에 떨어짐이요, 열째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단명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철우 스님은 계율이 좋은 삶을 위한 인간적 장치이고, 깨달음을 향한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계율은 불교의 윤리이며 도덕이자 부처님의 교육관이다. 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스님은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있던 계율도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불교 자신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생활 속의 작은 규칙들을 지키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결국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계율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귀기울어야 할 규범이자, 귀한 삶의 지혜”라며 “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것인 만큼 지계를 통한 청정교단 회복에 모든 불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율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적 장치

출가한 이래, 반평생을 계율 연구에만 몰두해온 철우 스님이 최근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를 출간했다. 스님은 딱딱하고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계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불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책은 철우 스님이 5년 동안 법보신문을 통해 연재한 ‘계율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스님이 처음 율장을 만난 것은 1967년 해인총림 동안거 때였다. 당시는 열심히 공부하려 해도 책이 없어 400자 원고지를 인쇄해 배워야 할 것들을 한 자 한 자 옮겨가며 공부를 했다. 책을 한 번 빌려보기 위해서는 3000배를 해야 했고,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책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기도했다.

그런 염원이 훗날 70권의 율장전서로 완성됐고, 책은 각 본사와 관심 있는 이들에게 배포됐다. 2009년 10월에는 한 권이 1000페이지가 넘는 4권이 한 질로 된 현토 번역 사분율 60권을 완간하기도 했다. 동시에 ‘율학 연구회’라는 모임도 만들어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스님은 1996년 파계사 영산율원을 개원하고 다시 율주 소임을 내려놓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계율’이라는 두 글자를 알려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스님은 “한 알의 좁쌀도 아끼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옆 사람에게 튀게 하지 말라는 등 계율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나를 사람들은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수행자들에게 계율은 깨우침을 향한 첫걸음임을 거듭 당부한다.

“계율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적인 장치이며, 깨달음을 향한 아름다운 시작”이라 말하는 스님의 따끔한 질타와 간절한 당부가 책 속 곳곳에 녹아있다.

스님은 “절 집안 역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면서 수행자들의 생활도 바뀌고 있다”며 “불법은 부처님이 아니면 한 법도 제정할 수 없으며, 수행자들은 따르고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요즘 출가자들이 계율을 소홀히 여겨 배우지 않고 건너뛴 채 사찰소임을 맡거나 사회사업, 포교사가 되고 싶어 할 뿐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 큰스님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돼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철우 스님은 “율학을 배우거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내가 바라는 것은 계율이 번창해 정법이 오래 머무르는 일에 애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율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계율을 공부해 청정승가를 위해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격려의 말도 전했다.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는 ‘계율’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 주며, 새해를 맞아 우리가 새롭게 지녀할 덕목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 | 철우 지음 | 조계종출판사 | 1만원

이은정 기자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찰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 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념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탱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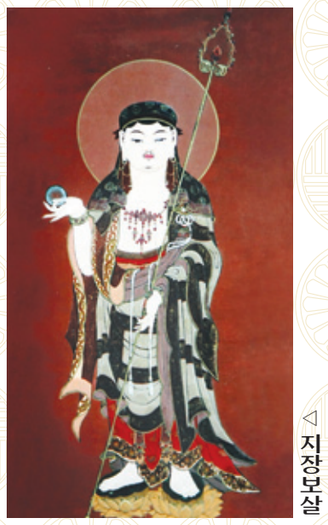
불모 민환식 대표작 ▼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탱화 8.8×2.7m
조계사 대웅전 영단탱화 13×2.1m 조계사 2만불 조성(석가여래약사불, 관음지장보살) 17×15×24cm

10점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작품규격 : 28cm × 43.5cm
재 질 : 원낫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 액 : 12만원 (택배비 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84-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한식)



◁ 지장보살



◁ 달마선사

자신을 밝게 하려면 남의 밝은 면만 봐야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



지원스님은 … 196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범어사 강원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국장 역임. 1991년 삼보사 창건. 1999년 육지장사 창건. 현재 중앙종회의원이며 삼보사와 육지장사 회주이다. 지은 책으로는 시집 〈장명등〉과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가 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퍼붓던 눈발이 조금 성글어지나 싶더니 또 다시 거침없이 쏟아진다. 눈을 한 겹 두른 차창 밖의 풍경은 파스텔화처럼 부드럽다. '저 많은 눈들이 제자리를 찾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 떨어진 자리가 바로 제자리가 되는 것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백석읍에 들어섰다. 커다란 기산저수지를 지나서 샛길로 접어들자 '육지장사' 라는 팻말이 보였다. 양주 도리산에 자리잡고 있는 육지장사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육지장보살을 모신 지장도량이다.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계와 축생계, 아귀계와 지옥계 등 육지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도량이라는 의미에서 사명(寺名)을 육지장사라고 지었다. 150평이 넘는 대웅전, 수선당과 선재당은 훤출하고 웅장하여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그런 기운을 지니고 있다.

수선당에 있는 다실에 들어서자, 도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방 한 가득 채우고 있다. 심우도 병풍이 있는 다실은 누구나 와서 차를 마실 수 있게 개방된 공간이다. 평생을 포교 일선에서 활동 해온 지원 스님의 몇 가지 신념 중 하나가 '사찰은 대중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절 문턱을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행여 이 산중에
당신이
올까 해서
석등에 불 밝히어
어둠을 쓸어내고

막돋은
보름달 하나
솔가지에 걸어뒀소.

지원 스님의 시 '만월(滿月)' 전문이다. 산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여 길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석등에 불을 밝혀두는 것도 모자라 하늘의 보름달을 따다 소나무 가지에 '척' 하니 걸어 둔 스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스님과 마주앉았다. 지원 스님은 기도 스님으로도 통하기에 먼저 스님이 생각하는 기도란 어떤 것인지 여쭈었다. 스님은 육지장사를 개원하게 된 인연부터 풀어나갔다.

"저는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나서 천막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임대법당과 전세법당을 10여 년간 전전하다 은평구에 400평의 법당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저의 원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천일관음기도를 세 번 올렸습니다. 은평구에 삼보사 법당을 마련하여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던 중 건강이 나빠졌어요."

사경을 헤맬 정도로 병이 무거웠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병고 그 자체가 지옥고로 여겨졌기에 어서 빨리 몸 바꾸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장기도를 시작했다. 지장기도 덕분인지, 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위중한 병이 나았고, 스님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으로 신도들과 함께 천일지장기도에 들어갔다. 천일지장기도에 대한 안내문을 돌린 일도 없었는데, 기도 동참자가 수백 명이 넘었고 기도 동참금이 수억 원이 들어왔다. 지원 스님은 이것 또한 아직까지도 기이한 일로 꼽고 있다. 스님은 단월들의 보시를 한 번도 허투루 써 본 일이 없기에 귀한 기도 동참금을 더욱 뜻깊은 일에 쓰고 싶었다. 그래서 해동에서 제일가는 지장성지를 조성하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현몽에 따라 도리산에 도리천궁인 육지장사가 세워진 것이다.

"이 시대의 한국불교가 지장보살과 같은 보살정신을 지닌다면 사회가 평화롭고 남북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장보살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예를 들면 농사짓는 지장보살, 장사하는 지장보살, 요리하는 지장보살, 운전하는 지장보살 등 다양한 지장보살이 우리 사회에 넘쳐난다면 평화와 행복이 절로 구현된다고 생각해요. 이곳이 바로 극락세계인 것이지요."

스님은 천일지장기도를 세 번이나 올렸고, 지금은 만일지장기도를 봉행 중이다. 평생에 천일기도 한 번을 봉행하기도 힘든데, 천일관음기도를 포함하여 여섯 번이나 성만했다. 6000일, 16년이 넘는 세월동안 올린 기도도 모라자서 만일기도를 발원했다고 하니 그 치열한 수행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스님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고 했다.

"기도를 비롯하여 참선과 사경(寫經)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에게 굳은 신념이 형성되어 매사에

다시 태어나려 시작한 지장기도 건강되찾고 지장성지 조성케 해

의욕적이고 열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열의는 마치 전등을 밝혀주는 발전소와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선 발심할 것을 강조합니다. 발심이란 마음을 낸다는 말인데 어떤 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발심을 신념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곧 기도와 참선과 사경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진정하게 갈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먼저 우리의 신체구조가 변한단다. 일념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우측뇌에서 β 엔돌핀(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β 엔돌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켜주며 의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저는 갖가지 일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은 십중팔구 제아무리 복잡한 문제일지라도 대개는 실상인 마음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들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젯거리가 발생하고 그 문젯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파묻혀 더욱 많은 고민거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신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병이든 경제문제이든 모든 문제가 결국 해결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놈은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 것이어서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만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비근하고 확실한 방법이 누구나 사용하는 '말' 이라고 생각해요. 말이라고 할 때 소리 내어 말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념 또한 언어에 속합니다. 한 번 말의 힘을 자각하게 되면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마음이 자유롭게 좌우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말이란 친화력을 가지기 때문에 말 하나를 통해서 불행했던 일상의 생활이 밝아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며 병약하던 몸이 건강해지기도 한다"면서 언어와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었다. 스님의 이러한 철학은 오랜 세월동안 포교일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살아있는 법문이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다.

종교의 출발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그 열망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단다.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기에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찰이다. 육지장사는 이미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감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템플스테이를 통한 포교는 무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단다.

"30~40대를 위한 워크숍을 해보기도 했으며, 트위터 동호회를 만들고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꾀했습니다. 와인동호회를 만들기도 하는 등 젊은이들의 취향을 아는 것이 소통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포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불제자의 할 일 아니겠어요?"

칠십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한다. 절 문턱을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1700년 동안 내려온 스님들의 건강비법을 조금만 개방하여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스트레스와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휴식형 사찰체험' 임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이다. 육지장사의 템플스테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단식수행프로그램과 게르마늄 쑥뜸온구체험, 경락추나 체험이다. 단식다이어트 프로그램에는 1700년 동안 내려온 스님들의 건강비법이 녹아있기에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 올해 박사학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발심은 전등 밝히는 발전소



위과정에 등록해 놓았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엿듣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는 말은 삶의 본질을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가령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신의학자 '디팍초프라'는 우리의 정신과 감정상태는 내분비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육체적 활동과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님은 '호르몬은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상호전달 체계를 만들어 온 몸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마치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 했다.

육지장사를 지을 때부터 대중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웅전으로 오르는 49개의 계단은 객석이 되도록 했고, 관객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옥(玉)으로 깔았다. 이곳 육지장사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기도 하는데 큰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은 락공연이었다. 산중에서 락공연을 한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포교관이다. '사상과 종교에 관계없이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문화' 이기에 스님은 문화를 통해서 여러 세대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다.

부천에서 온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게르마늄 쑥뜸온구체험과 경락추나 체험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지원 스님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고 붙잡는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쌍화차가 좋다면서 앞이 작은 다상을 내어준다. 이런 극진한 대접에 사람들은 감동하게 된다.

몸은 나의 생각 낱낱이 들어 듣는대로 몸과 삶이 변한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종교의 문이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종교라는 공간이다. 지원 스님은 종교의 이러한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절을 찾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갑게 맞이해준다.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비법' 을 가르쳐주시기를 청했다.

"자기 자신을 밝게 하려는 사람은 남의 행실 가운데 밝은 면만을 보아야 하며, 밝은 행실을 기쁨으로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마음 속에 불쾌한 모든 기억들은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실상과 언어의 힘을 믿고서 희망과 사랑과 행복의 에너지로 가득 찬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단순명쾌하고 머리와 가슴에 쏙쏙 박히게 만든다. 절마당에 조성된 의상조사의 '화엄경 법성게' 도를 화살표를 따라 걸어보았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첫 발심 했을 때가 바른 깨달음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문윤정 수필가(본지 객원 기자) blueyon6@hanafos.com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5



비예산 연력사의 중흥조 료겐(良源) ①

료겐(912~985)은 정월 초삼일에 열반했다고 해서 원삼 대사(元三大師)로 널리 알려져 있다. 료겐에게는 이 외에도 여러 별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뿔[角] 대사와 콩[豆] 대사이다. 뿔 대사는 료겐을 뼈와 가죽만이 남은 앙상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지칭한다. 역병의 신을 물리치는 귀신상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민가에서 부적으로 사용됐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역병이 창궐하던 시대, 민중은 역병이 도는 것을 역병의 신이 마을을 배회하는 것으로 여겼다. 료겐은 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춘 자세로 눈을 감고 선정에 들었다. 그의 모습이 점점 변해 불법을 수호하는 야차가 됐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제자가 재빨리 그림으로 옮겼다. 료겐은 야차로 화한 자신을 그린 그림을 목판에 새겨 인쇄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민중에 배포해 집집마다 문 앞에 붙이도록 했다. 이를 붙인 집안에서는 역병이 물러가고 일체의 재액마저 면할 수 있었다.



료겐대사상

콩 대사는 가사를 역병 돌 때 야차 모습 새겨 집집마다 붙이게 해 초상 33개 9단으로 쌓아올려 전답지키는데 활용

입은 귀여운 모습의 료겐 초상 33개를 9단으로 콩처럼 작게 쌓아 올린 모양으로 이 또한 부적이다. 콩 대사 부적은 주로 농민의 전답을 지키는데 활용됐다. 여의륜관음의 화신으로 알려진 료겐은 관음 33신의 사상이 결합돼 중생에게 이익을 주거나 고통을 소멸케 하는 위력을 가진 존재였다. 이처럼 그는 인간을 액난에서 구제하는 항마 대사나 액제(厄除) 대사로 불려 왔다. 료겐은 미래의 희망을 품는 민중 심리를 파악해 신사나 사찰에서 신불의 위력으로 길흉을 점치는 오미쿠지를 창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교가 고원한 사상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의 눈높이에서 민간신앙을 방편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료겐은 천태종 최고지위인 18대 좌주(座主)로서 쇠퇴해 가는 종단을 중흥시킨 인물이다. 시호는 자혜(慈惠) 대사이다. 그의 어머니가 자식을 얻기 위해 관음보살에게 기원했는데, 꿈에 바다 위에 앉아서 천상을 바라보던 중 해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낳았다고 한다. 그는 17세인 928년 천태종 본산 연력사에서 출가해 료겐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천태와 밀교를 두루 섭렵한 료겐의 명성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나라(奈良) 법상종과의 종론 논쟁에서였다. 그로부터 150년 전 종조 사이쵸(最澄)의 경우와 같았다. 료겐은 937년 나라 흥복사의 유마회에서 기쇼(義昭)를 논파한 것은 물론, 963년 궁중에서 개최된 법화8강의 논석에서 법상종을 대표한 호죠(法藏)와 대결해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호죠가 법상의 교의인 '정성2승 불성불의(定性二乘不成佛義)에 의거해 부처가 될 수 없는 자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료겐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일체중생개성불(一切衆生皆成佛)' 의 천태의 입장을 주장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호죠는 료겐에 대해 "자네의 변은 부루나 존자와 같다. 내가 어찌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찬탄했다고 한다. 료겐을 부처님 10대 제자 중 설법제일인 부르나 존자에 비유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966년, 료겐은 천태의 좌주로 임명됐다. 좌주가 된 료겐은 승려육성을 위해 교학을 진흥하는데 힘썼다. 이를 위해 료겐은 광학수의(廣學竪義)라고 하는 논의문답의 의식을 확립시켰다. 현재에도 일본불교에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5년마다 한 번씩 법화대회를 개최해 승려의 능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26개조 기청문(起請文)' 을 제정해 산내 승가의 규율을 바로잡았다. 료겐은 기청문을 통해 승려의 사치를 비롯해 사적인 승병의 무장을 해체시키고 사형(私刑)을 금지시켰다. 포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료겐은 매월 2회에 걸쳐 포살을 행할 것도 명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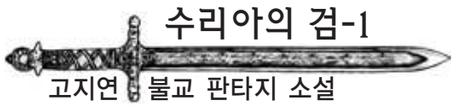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이 몸은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겠어… 실패하더라도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암흑속의 두 소년④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을 찾지 못한 무니는 칼키처럼 바닥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이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라는 체념과 '그래도 나가야 한다' 라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했다. 서서히 눈이 감겨왔다.

"난 그래도 여기서 나갈 거야…."

잠들기 전, 무니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믐날 밤은 이미 다 지나갔다. 저 아득한 아래에서는 태양이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고, 명상을 멈춘 루드라는 테드모가 가지고 온 물건을 찬찬히 관찰하는 중이었다. 그가 공중에 띄운 채 살펴보고 있던 그 물체는 얼핏 구슬 같아 보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는 돌 조각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루드라의 세 번째 눈동자에 비친 그것의 모습은 달랐다. 아주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 하나의 빛 덩어리였다. 그 빛 때문에 형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의 목에 감겨있던 뱀도 그 눈부심 때문인지 아예 눈을 감아버린 모습이었다. 그렇게 그 빛 덩어리에 대한 고요하면서도 깊은 관찰은 태양이 아래 세상에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윽고 루드라의 세 번째 눈이 감겼다. 그와 동시에 공중에 떠 있던 그 물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루드라는 조용히 테드모라는 이름을 속삭였다. 그러자 허공을 떠다니던 먼지들이 소용돌이치며 마치 자석처럼 어딘가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먼지의 소용돌이가 조금씩 잦아들며 멈춘 자리에는 어느 새 테드모가 서 있었다.

"네 말대로 그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온 물건이 아니더구나."

테드모는 한 쪽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직접 내게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지?"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물체가 소년의 몸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그 소년에게서 그 걸 찾아냈을 때부터 말입니다. 마치 그 물체 자체에 의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테드모가 계속 이야기 했다.

"아마 그 아이가 눈의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물체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건, 아마도 그 물체에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어떤 주문이 걸려 있거나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 아닐까 짐작 되었습니다."

루드라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인간은 물론, 하급 신 정도의 능력은 뛰어넘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겠군. 네가 기억에 담아 온 형상만으로 거기까지 짐작키는 어려웠는데 말이지. 어찌되었든 좀 더 알아봐야겠어. 크리슈나 쪽도 살펴보는 게 좋겠지."

그 말에 테드모의 눈썹이 긴장한 듯 살짝 치켜 올라가자, 루드라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네게 그 임무를 맡기지는 않을 테니, 괜히 굳을 필요 없네. 그나저나 여전히 그들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군. 하긴 네겐 원한 역시 힘의 원동력이니, 어쩌면 풀리지 않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르지. 테드모, 내게 너의 악은 굉장히 중한 것이다. 그것은 내 본연의 역할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창조의 크리슈나에게 너는 파괴하는 도구 이상은 아니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치지."

고개를 숙인 테드모의 표정에서 아까의 변화는 사라졌다. 루드라는 그런 테드모를 잠시 응시하다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고작 그런 인간의 꼬마 따위가 가지고 있다니, 어찌된 영문일까.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얼음의 성에 또 다른 인간 아이와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흠. 그 또 다른 소년의 이름은 뭐라고 하였지?"

테드모가 "칼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 칼키… 이름이 맘에 드는 소년이었어."

고개를 끄덕이던 루드라가 테드모에게 물었다.

"그 아인 아직 어떤가? 인간의 시간으로 하자면 한 몇 달 쯤 갇혀있었을 텐데 말이야."

"네, 별 다른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눈의 산에서 발견한 소년을 데리고 감옥에 갔던 부하의 보고로는 말입니다."

루드라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캄포가 실망하겠군. 나는 사실 캄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가 건의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에게 인간계의 벌을 내리는데 그쳤겠지. 하여간 두 소년이 지금 함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테드모의 대답에 루드라는 눈의 산 쪽을 바라봤다.

"흠. 그럼 오랜만에 얼음의 성에 한 번 가볼까."

테드모는 신의 그 말에 놀랐는지 숨을 크게 한번 들이키더니, 분부만 내리시라는 듯 고개를 숙였다. 루드라가 눈의 산으로 내려갔던 건 테드모가 그를 모신 이래로 세 번째 있는 일이었다.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꿈처럼, 암흑과 침묵 속에서 밤의 나머지 시간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든 무니의 얼굴은 아까의 고민들은 모두 날려 보낸 듯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얼음의 감옥에서 유일하게 다행인 것은 하루든이틀이든 내키는 대로 잠을 자도 몸에 아무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원을 살아야하는 죄수들에게 이 잠은, 끝없는 시간과 삶이라는 감옥에서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무니의 잠은 그것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모험으로 소년은 매우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다.


삽화 · 김홍인

날이 밝아왔다. 무니보다 먼저 일어난 칼키는 방에서 하나 뿐인 조그만 창으로 목을 뺀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끝없는 하늘과 그 하늘을 닮은 빛깔의 물 뿐이었다. 그러나 칼키는 그 지루할 정도로 적막한 풍경을 일 초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계속해서 바라봤다. 마치 무엇을 기다리는 것도 같았다. 그때, 무니가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일어났구나."

목을 창문 밖으로 향한 채로, 칼키가 말했다. 무니는 눈을 비비며 그런 칼키의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을 쳐다봤다. 그가 이 방의 유일한 가구인 탁자 위에 자신의 베개, 그리고 그 위에 무니의 베개까지 위태롭게 쌓아놓고 무릎을 꿇은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니는 멍하니 있다가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사방이 수정으로 되어있는 좁은 방 안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무니가 칼키에게 물었다.

"어제 네가 그랬지?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거냐고 말이야."

무니의 '그래' 라는 대답이 하품과 함께 흘러나왔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여기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라고 말이야."

"그랬지. 하지만 내가 자기 전에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너하고 단 둘이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몸은 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 봐야겠어.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이야."

"하하하. 좀 섭섭한데? 어젯밤 대화로 좀 친해진 줄 알았더니"

칼키는 계속 바깥을 내다보며 말했다. 무니는 짐짓 서운한 말투의 그에게 대꾸하는 대신, 칼키가 올라가 있는 탁자 위로 자신도 올라갔다.

"야. 넌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냐?"

칼키는 무니 쪽은 여전히 쳐다보지 않고 "밖"이라고 대답했다.

"누가 밖인 줄 모르고 묻는 줄 알아? 어딜 보는 건데!"

대답 대신 칼키는 무니의 목을 끌어당겨 어떤 방향을 바라보게 했다.

"저기를 잘 봐. 뭐가 좀 보여?

무니는 칼키가 가리키는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뿐이었다.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아직은 아무 것도 안 보이지. 그럼, 냄새를 한번 맡아봐. 무슨 향기 같은 게 나지 않아?"

무니는 칼키의 말을 듣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 보았다.

"별 다른 냄새는 안 나는데? 흠…. 이 시원한 냄새는 어제도 맡았던 거고."

"그렇지? 뭔가 시원한 느낌의 냄새가 나지? 강가나 바닷가 같은 데서 나는 냄새 말이야.

"응. 그런데 이 냄새가 뭐? 여기가 바다 윈데 당연한 거 아니야?"

칼키는 한 자세를 너무 오래 취했다는 듯 목을 움직이다가 무니의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네겐 저게 바다로 보였구나. 하긴 크긴 되게 크니까. 아무튼 저건 연못이라고 친구. 일단 파도가 없잖아? 간혹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네가 온 이후부터는 계속 저렇게 연못이 파도치듯 움직였던 거 같다. 그러니 바다라고 착각을 하지. 하여간 저건 연못이고, 이름은 '괴로움이 없는 연못' 이래.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 겠어. 저 물을 마시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여기 누가 저 물을 마셔볼 수 있겠어? 신이나 마시면 모를까."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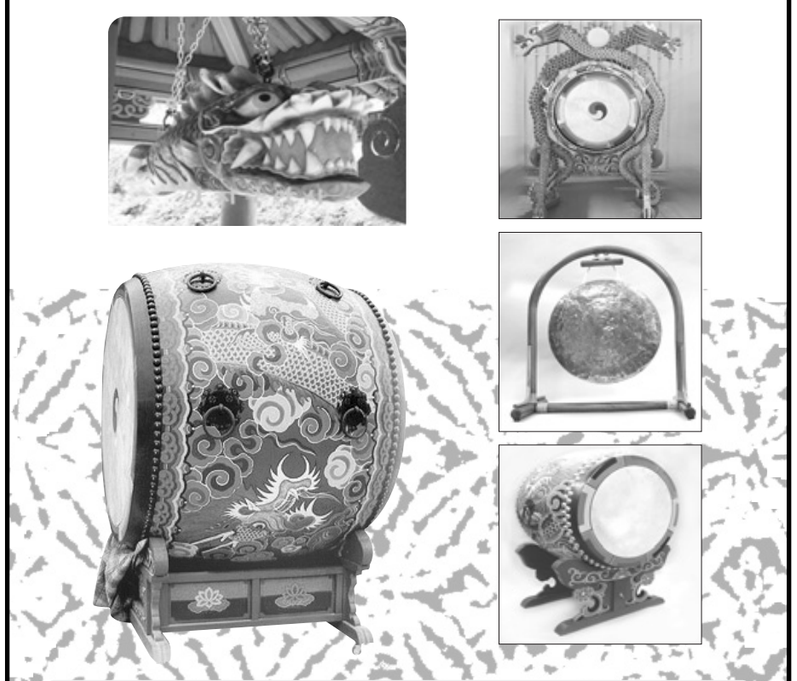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2〉

남 속이고 도둑길 가려고 출가했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출가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명성을 얻으려하지 않고 더럽고 추한 것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다."

問 如何是出家
師云 不利高名不求垢壞

출가자에게 독(毒)은 명예와 재물이다. 출가자는 세속을 버리고 부모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 그 이유는 오로지 마음 속의 번뇌를 끊어내고 해탈을 얻기 위함이다. 출가자가 해탈을 얻은 다음에는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더욱 부모자식을 돌아보기 힘들다.

대장부로 태어나 남들이 다하는 혈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오명이다. 다만 출가의 뜻이 좋아 그런대로 이해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출가하여 해탈을 얻거나 남을 위한 헌신은 고사

명예 · 재물은 출가자의 독
해탈 체득에 힘써야

하고 오로지 일신의 안일만을 위한 명예, 더럽고 추한 재물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왜곡되고 소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도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니면서 구차한 한 몸뚱이의 명성과 안일을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해 부처를 파는 것에 일평생 몸을 바친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사기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남을 속이는 도둑의 길을 가려고 출가한 것인가? 뜻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 이러한 수모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출가한 것인가?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헤아려보아야 출가자이다.

학승이 물었다.
"다만 한 법도 가리키지 않는다 하는데 무엇이 화상의 법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묘산(笯山)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
학승이 말했다.
"묘산(笯山)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화상의 법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에게 이미 묘산(笯山)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학승이 말했다.
"하지 않는 것이 그것[묘산의 법]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아직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야."

問 不指一法 如何是和尚法
師云 老僧不說笯山法
云 既不說笯山法 如何是和尚法
師云 向你道不說笯山法
云 莫者箇便是也無
師云 老僧未曾將者箇示人

〈금강경〉의 핵심 설법은 무상(無相), 무정(無定), 무명(無名), 무위(無爲)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불법은 한 법도 세우지 않고 있음[不指一法]을 알 수 있다. 불교는 한 법은 물론이고, 한 생각도 세우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로 도교가 불교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인도의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 불경의 언어 몇 가지를 도교에서 쓰는 말로 번역했다. 대표적인 단어가 무위(無爲)이다. 그래서인지 어떤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선불교는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곤란하다.

도교와 불교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선불교는 대승불교의 경전에 바탕을 둔다. 부처의 마음을 중시하고, 현세에서 해탈을 구하고, 깨달음을 강조하고, 은둔이나 도피가 목적이 아닌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감을 목적으로 한다. 있는 그 자리에서의 해탈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는 그 무엇도 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묘산의 법도 세우지 않는다. 묘산은 조주 스님 당시 도교사원이 있었던 산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불교도 세우지 않고, 부처도 세우지 않는다. 선사들은 무엇을 가리키거나 설명하지 않는 다. 조주 스님 역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특별히 보인 적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눈앞에서 홀로 해탈하는 한 길[目前獨脫一路]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2도 없고 3도 없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눈앞의 그 길로 학인이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러다가는 천리만리 멀어져!"

問 如何是目前獨脫一路
師云 無二亦無三
云 目前有路 還許學人進前也無
師云 與麼即千里萬里

목전에서 해탈하는 길에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한 길만이 해탈하는 길이다. 수행은 여러 길이 있다. 명상, 요가, 위빠사나, 독경, 화두 참구, 주력 등이 있으나 이들 수행은 모두 해탈을 돕는 수행이지, 직접 해탈이 일어나게 하는 수행은 아니다. 진정한 길은 한 길이다. 해탈은 목전에서 일어난다. 염불하다가 한 생각이 툭 터졌을 때 일어난다. 화두를 들다가 한 생각이 툭 터졌을 때 일어난다. 선사의 법문을 듣고 한 생각 툭 터졌을 때 일어난다. 깨달음은 한 찰나에 아귀가 맞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향상사(向上事)입니까?"

수행법은 해탈 도울 뿐
무엇이 됐든 한 생각 툭 터져야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자네의 발밑에 있어."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어찌 저의 발밑에 계십니까?"
"자네는 향상사가 있음을 원래 알지 못하고 있군."

問 如何是毘盧向上事
師云 老僧在你脚底
云 和尚爲什麼在學人脚底
師云 你元來不知有向上事

향상사(向上事)는 '한 단계 높은 일'을 말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보림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향상사이고, 부처에게는 좀 더 효율적인 차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향상사이다. 비로자나불의 향상사라 함은 비로자나부처님이 지향해 나아가는 길을 말한다.

조주 선사가 "노승은 자네의 발밑에 있어"라고 말한 것은 한없는 겸손을 표현한 것이다.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려는 것이 이들의 향상사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32 한국선과 선어록 3

순지화상어록

신라 말기에 오관산(五冠山) 서운사(瑞雲寺)에 주석했던 순지(順之: 807~883)는 선종오가 가운데 위앙종 선법을 전승해 원상(圓相)이라는 나름대로 독특한 방편을 통해 해동에 선풍을 진작한 인물이다.

순지에 대한 행장 및 그 어록은 〈조당집〉에 자세히 수록돼 있다. 어록이라 해도 단행본으로 전승한 것은 없지만 〈조당집〉에 수록된 그 법어 및 저술로 간주되는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은 독립된 어록으로 간주해도 손색이 없다. 이에 의하면 순지는 위앙종 앙산혜적의 법을 이었다. 이로써 중국의 남양혜충 국사로부터 비롯되는 표상현법(表相現法)을 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선법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순지화상의 표상현법에 첫째는 사대팔상(四對八相), 둘째는 양대사상(兩大四相), 셋째는 사대오상(四對五相) 등으로 도합 10대 17상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곧 온갖 기호와 부호 및 상징적인 원상(圓相)을 통해 선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수행의 방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처음에 육조혜능의 제자 남양혜충이 96종의 형상을 통해 전승한 이후로 그의 제자인 탐원응진(耽源應眞) - 앙산혜적(仰山慧寂) - 요오순지(了悟順之)로 계승됐다. 순지는 이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표상현법을 창안했는데 〈조당집〉을 통해 지금도 17종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에 위앙종 선법 전래한 순지
원상 방편 통해 선풍 진작시켜

순지는 수행과 교화에서 위앙종의 표상현법(表相現法)과 화엄의 도리에 입각한 증리성불법(證理成佛法)으로서 〈삼편성불론〉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전승했다. 표상현법은 달리 방원묵계(方圓默契)라고도 한다.

그 원리는 화엄의 도리에 입각해 증리성불(證理成佛)·행만성불(行滿成佛)·시현성불(示顯成佛)로서 이론과 실천이 결부된 가르침이기도 하다. 증리성불이란 선지식의 말을 듣고 일념(一念)에 돌이켜 자기의 마음 바탕에는 본래의 일물(一物)도 없음을 활짝 깨치는 성불이다. 만행을 차례로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리성불이라 한다.

행만성불은 이미 진리의 근원을 끝까지 구명한 이후에 다시 보현의 행원을 따라 보살도를 두루 닦아 수행이 골고루 갖추어지고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지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 한다.

시현성불은 앞의 증리성불과 행만성불로 자행성불(自行成佛)을 마친 때 중생이 바꾸어 성불한다는 뜻으로 곧 석가가 팔상성도를 행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삼편성불론〉에 대해 그것을 실제로 증득해 나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삼증실제설(三證實際說)로 화엄사상을 선가의 입장에 서서 깨친 이후에 실천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이다. 이 사상의 중심 문제는 돈오한 수행인이 지구력으로 계속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면 근기의 차이는 있으나 언제나 동귀일미(同歸一味)하는 때가 올 것으로 신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또한 선인과 은사의 문답으로 선리를 이끌어 가되 선리에 대한 대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삼증실제란 첫째는 돈증실제(頓證實際)이고, 둘째는 회점증실제(廻漸證實際)이며, 셋째는 점증실제(漸證實際)이다.

돈증실제는 중생이 무시이래로 성품을 깨닫지 못해 인연 따라 삼계에 윤회하다가 홀연히 선지식을 만나 성품을 깨치므로 어느 단계적인 점수에 의지하지 않고 정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회점증실제는 무시이래로 자신의 성품을 깨치지 못해 윤회하다가 점차 삼승의 점교를 듣고 삼승법을 알아가는데 홀연히 진교(眞教)를 듣고서 묘혜를 터득해 실제를 증득하는 것을 말한다. 회점증실제는 삼승법을 익히고서나서 비로소 돈증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돈증실제와 다르다.

점증실제는 어떤 중생이 끝없는 옛적부터 성품의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삼계에 윤회하면서 인연 따라 과보를 받다가 갑자기 점교(漸教)를 듣고서 믿음과 이해가 차츰 생기면 수행은 여섯 가지 지위에 의탁하고 삼아승지겁을 지내면서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여 미혹을 끊고 덕을 이루면 비로소 무루의 참 지혜를 얻고 법신을 성취하는 것이다. 믿음의 싹이 돋으면 부처님들이 모두 다 아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 닦으면 오는 세상에 결과를 증득한다는 것이다. 삼아승지겁 동안 육도수행(六度修行)을 통하여 무루의 종자를 익혀 불가사의한 과보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현의 온갖 보살행에 대하여 출전보현(出纏普賢)·입전보현(入纏普賢)·과후보현(果後普賢)의 세 가지로 나눈다.

출전보현(出纏普賢)은 견성한 이후에 보현행을 하는데 모든 경계 앞에서도 한 생각 일어나더라도 이미 심원(心源)에 도달해 그로부터 환화(幻化)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입전보현(入纏普賢)은 일체중생 가운데서 동류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앞의 출전보현위(出纏普賢位) 가운데 비지(悲智)를 널리 행하여 중생속에서 자리이타행을 하는 것이다.



과후보현(果後普賢)이란 두루 삼매를 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삼편성불론〉에는 수행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경전연구회 경전강좌 안내

출가 스님들만의 공부모임인 불교경전연구회 아래와 같이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 강 주 : 설우스님 ■ 경 전 : 금강경오가해
■ 과 정 : 1년 ■ 모집인원 : 약간명
■ 개 강 : 2011년 3월 17일(목) 오후 3시 첫강의
■ 수 강 료 : 20만원 (6개월)
■ 장 소 : 서울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불교경전연구회에 뜻을 함께 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불교경전연구회에서 개설해 수많은 스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 온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고우큰스님	육조단경	제5회	지안큰스님	대승기신론
제2회	고우큰스님	선요	제6회	통강큰스님	전등록
제3회	혜거큰스님	유식삼십송	제7회	통강큰스님	선문촬요
제4회	무비큰스님	임제록	제8회	설우큰스님	금강경오가해

ㄴ,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 계좌번호 : 우체국 102608-01-001671 (예금주 : 경전연구회)
♠ 문 의 : 회장 무각스님 011-9929-4457 / 총무 법정스님 010-7963-7070 / 재무 정담스님 010-9669-3917

불 교 경 전 연 구 회 회장 무각 합장

영남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상운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3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1년 3월 10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향이 약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은 몰랐죠?”

새로운 향 문화 만들어 가는 인사동 능인향당 침향갤러리

“향은 절에 다니는 사람만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합니다.”

2010년 8월, 서울 견지동에 10평 남짓하게 자리 잡은 능인향당 침향갤러리(대표 김영옥)가 들어섰다. 능인향당은 1986년 문화예술분야의 국악인, 조각가, 화가, 시인, 도예가 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참 공양의 의미를 되새긴 향 연구에 오래도록 힘써왔다. 그 후 능인향당은 불상, 불교용품 그리고 향을 제조 유통하는 불교용품 전문 제작 브랜드로 자리잡아왔다.

능인향당은 최근 침향갤러리를 오픈하며, 6개월 여 동안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다. 1월 17일 침향갤러리에서 만난 임정선 이사는 “향 문화가 이제 새로운 문화코드로 확산돼야 할 때”라며 앞으로 능인향당 침향갤러리의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 능인향당 침향갤러리는 오픈 이래, 다양한 향 체험과 향 감상, 향에 대한 정보 공유, 다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왔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있진 않지만 임정선 이사는 향 문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처음 갤러리를 열게 된 계기도 사람들에게 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갤러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침향차를 대접해 드렸더니 자연스럽게 향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2월부터는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향 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임정선 능인향당 이사.

능인향당 침향갤러리에는 한쪽 귀퉁이에 자그마한 다실이 꾸며져 있다. 인테리어는 전부 향과 관련된 향로, 향꽂이, 조각 등으로 전시돼 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향에 대한 정확한 쓰임새는 커녕, 관심조차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러한 경향도 점차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목사님들도 향을 찾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직까진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집필을 하시는 경우 향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한의사분들은 약재로 쓰기 위해 향을 찾곤 하십니다.”

임 이사는 “향이 부처님 공양물로 쓰이는 것은 향의 쓰임새 중 일부분일 뿐”이라며 “부처님의 복장유물을 비롯해 조각이나 공예품, 약재, 차 등으로 쓰임새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향은 요즘 일반인 사이에서는 집안의 잡냄새를 제거를 위해 자주 쓰이면서, 그 용도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그만큼 시중에는 다양한 향들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개발·판매되고 있다.

임정선 이사는 가장 좋은 향으로 침향을 꼽았다. 침향(沈香)은 물에 가라앉는 향이란 뜻으로 열대, 아열대 우림 기후에 자생하는 상록교목인 침향나무에서 채취한 수지가 포함된 향목이다. 성장한 침향나무는 나무표면이나 내부에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수지를 생성하게 된다. 침향은 이 수지부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침착되고 숙성된 부분을 말한다. 약재로 사용되는 향도 바로 이 침향이다. 실제로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에는 침향이 각종 난치병과 신장계통, 간염, 위장병, 혈관, 신경계, 갑상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수록돼 있다.

침향은 본래 사향, 용연향과 더불어 세계 3대 향으로 불렸다. 동물에서 나오는 사향과 용연향과는 달리 침향은 유일하게 식물에서 생산되는 향이다. 고대에는 동물성인 사향과 용연향은 사람의 기(氣)를 들뜨게 해, 이성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반면 침향은 사람의 기를 눌러 정신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왔다.

침향, 사향, 용연향 최고의 향은 단연 침향

세상에 알려진 일반 향들이 재료를 가공해 향을 만든다. 반면 침향은 나무 안에서 자연적으로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천 년이라는 세월동안 아주 서서히 점착되면서 숙성된 수지로부터 얻어지는 천연향이다. 그래서 침향은 왕들이나 특권계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


능인향당 침향갤러리는 2010년 8월에 처음 문을 열고, 새로운 향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약재로도 사용되는 침향.

임정선 이사는 “침향은 다른 향들과 달리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중에서 매우 고가로 팔리고, 믿고 침향을 구할만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침향은 대체적으로 시세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데, 그 또한 등급과 무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침향은 예부터 일반인들이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다. 민초들 사이에는 향나무나 참나무 토막을 갯벌에 묻어 정성으로 빌면, 1000년 후 묻어 놨던 나무토막이 진짜 침향이 된다는 설이 퍼지기도 했다. 민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고, 구할 수도 없던 침향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세에 세상을 구제하러 오실 미륵불의 현신을 바라며 시작됐다. 이것이 매향(埋香)의식이다. 매향의식은 용화삼회(미륵부처님이 이 땅에서 3번의 법회를 여는 것)에 미륵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리려는 간절함 염원에서 비롯됐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정성뿐이었던 민초들은 매향에 의해 인위적으로 침향을 만들 수 있다는 염원을 낳았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침향’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자신의 모교에 헌정하기도 했다.

“침향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굵직 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궈 넣어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2~3백년은 水底(수저)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비롯한다 합니다. 천년즘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굽시오.”(중략)


가공된 침향이 전시된 모습.


가공되기 전의 침향이 등급별로 전시된 모습.

임정선 이사는 “실제로 향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는 시중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향에는 첨가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통 향들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가루, 조개가루, 재 등을 함께 섞어 향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 향을 태우면 유독가스가 흘러나와 향을 맡았을 때 불편함을 준다.

임 이사는 “향을 고를 때 반드시 향을 태워보고, 향의 냄새를 맡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을 태울 때 불꽃이 유달리 빨갛고, 재가 하얗고 예쁘게 타들어가는 것은 첨가물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재를 손바닥에 떨어뜨려, 화장품을 바르듯 만져보면 모래알 같은 작은 알갱이들이 느껴질 겁니다. 만약 향을 태워보고 구입하기 어렵다면 향 자체의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임정선 이사는 사람들에게 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물건인지를 알리기 위해 매년 봉축행사 때 마다 향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해 왔다. 임 이사는 “외국인들과 어린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며, 향에 대해 매우 관심을 보이고 궁금해 한다”라며 “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향의 품질도 우수해지고,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다. 향을 제한적인 용도로 쓰는 물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나 스스로를 위해 쓰는 물건이라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4817-0550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초발심자경문 불교학개론, 근본불교 불교문화사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입학원서1부(5,000원) 반명함판사진 3매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무 료
	2학년		한국천태종사 밀교사상, 천태수행론 금강경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법화경, 포교방법론 천태사교의, 유마경 중관사상, 천태정토 불교의식, 유식사상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 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0년 11월 22일 ~ 2011년 2월 18일 18시까지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 면접 : 2011년 2월 20일(일) 14시	•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우면AP,관문사에서 하차)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인 천 황룡사 : 032.567.2533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오 산 황덕사 : 031.373.2126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청나라 말기에 복원되어 보수를 거듭한 옛 전각과 요사.


지금도 대중스님들이 거주하는 옛 백장사의 탑과 천왕전.

백장사(2)

백장사는 당나라 대력 연간(776~779)에 지어진 향사암(鄕寺庵)이란 조그만 암자가 중창을 거듭하면서 총림이 된 절이라고 전해진다. 암자 이름대로 산촌 사람들을 위해 시창했다가 백장선사가 주석하면서 백장사로 이름이 바뀌었을 터. 백장선사가 입적한 뒤에는 한때 시호를 따라 대지성수선사(大智聖羞禪寺)라는 편액을 내걸었던 듯하다. 그러나 승속의 불제자들은 절 이름을 다시 백장사로 돌렸다.

절 뒷산인 대웅산(大雄山)도 현지 주민들은 백장산이라고 부른다. 백장사가 가장 융성했을 때는 명청시대였다고 한다. 명 홍무 연간에는 3사(寺) 5묘(廟) 48암자라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 지금 황제의 궁궐처럼 웅장하게 복원하는 것도 그때를 재현하고자 그러지 않나 싶다. 작위(作爲)는 욕심과 이복형제쯤 될 것이다. 무상의 절절함이 신심을 증장시키는 법인데 안타깝다.

산문을 들어서 대웅전까지 걸어가는데, 연못을 지나 축구장만한 마당을 거쳐야 하니 청빈을 수행자의 요긴한 덕목으로 여겼던 옛 조사님들에게 자꾸 송구한 마음이 든다. 화로 속의 불티 한 점, 땅바닥에 흘린 쌀 한 톨을 주워들고 법문하던 백장 선사의 검박한 정신도 찾을 길이 없다.

스님은 복건성 복주(福州) 장락(長樂) 출신인데, 조상은 태원(太原)의 왕(王)씨로서 영가(永嘉)의 상란(喪亂)을 피해 이주한 가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사가어록〉은 왕씨라고 하고, 〈조당집〉에는 황(黃)씨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린 시절 백장은 어머니를 따라 절에 자주 가곤 했다. 하루는 부처님에게 절하고 나서 어머니를 크게 놀라게 했다.

"어머니, 저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이시다."

"생김새가 사람 같아서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뒷날 저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스님은 약산 유엄의 삭발스승인 서산혜조 화상에게 머리를 깎고, 형산 법조 율사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비구계를 받고 난 뒤 "장차 미망의 근원을 씻어내려면 반드시 법의 바다 가운데서 노닐어야 하거늘, 어찌 오로지 마음을 깨치는 것뿐이랴. 또한 말로 따지어 가르치는 것도 의지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후 스님은 안휘성 여강으로 가서 수년에 걸쳐 부차사(浮搓寺)의 장경을 두루 열람한 뒤 마조 대사 문하로 들어가 인가를 받았다.

마조 대사를 만난 백장이 깊이 깨달아 인가를 받는 선화다. 스님이 마조 대사를 모시고 가다가 날아가는 들오리 떼를 보았는데 그때 마조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조가 갑자기 백장의 코를 잡더니 인정사정없이 비틀었다. 백장은 아야! 하고 비명을 질렀다.

마조가 백장의 코를 비트니 비명을 지르며 대오하다

"날아가 버렸다니, 어디 다시 말해 보거라!"

마조의 날벼락에 백장은 문득 깨달았다. 시자 방으로 돌아온 백장은 목 놓아 울었다. 걱정이 된 한 스님이 물었다.

"부모님 생각에 우는 겁니까."

백장은 고개를 저었다.

"누구에게 욕을 먹었군요."

백장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도대체 왜 우는 겁니까."

"스님께서 제 코를 사정없이 비틀어 아파서 우는 겁니다."

"무슨 일로 스님의 노여움을 샀습니까."

"직접 스님께 여쭤보시지요."

그는 곧 마조에게 갔다.

"회해 시자는 무슨 일로 스님께 코를 잡히고 나서 우는 겁니까."

"회해가 알 것이니 그에게 물어 보거라."

할 수 없이 그는 백장에게 와 말했다.

"스님께서는 회해 스님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백장이 큰 소리로 웃어젖혔고,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물었다.

"아까는 울더니 지금은 왜 웃습니까."

"맞습니다. 아까는 울었고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다음날 마조가 법문하려고 법상 앞에 앉았다. 그런데 백장은 대중이 보는 가운데 좌복을 개켜 치웠고, 마조는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잠시 후 마조가 뒤따라 간 백장에게 물었다.

"설법도 시작하기 전에 왜 좌복을 치웠는가."

"어제 스님께서 제 코를 비틀어 아파서 혼났습니다."

"어제 너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오늘은 코가 더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일을 잘 알고 있군!"

〈사가어록〉에서는 이 부분이 '어제의 일을 깊이 밝혔구나' 라고 나온다. '백장은 마조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난 뒤 물러난바, 이렇게 해서 백장의 들오리(百丈野鴨)' 이란 공안이 탄생하게 된다. 백장이 신도들의 요청으로 대웅산으로 들어와 주석하기 시작한 때는 마조가 입적한 뒤였다. 대웅산의 바위와 묏부리가 깎아지른 듯 높았으므로 스님을 백장(百丈)이라 불렀고, 머문 지 한 달이 못 되어 대중이 몰려들었다. 그중에서도 고족(高足)은 위산 영우와 황벽 희운(黃檗希運)이었다.

백장이 선종사에 남긴 최대의 족적은 아마도 〈선원청규(禪院淸規)〉의 제정이 아닐까 싶다. 이로 인해 선사와 율사 도량이 구분되어 발전했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一日不食)' 는 농선(農禪)의 보청정신이 확립되어 황실이나 귀족의 후원, 혹은 탁발에 의지하지 않고 대중이 스스로 논밭을 개간하여 자립의 기반을 다졌던 것이다.

'널리 청한다' 는 보청(普請)은 울력처럼 누구나 예외 없이 노동에 참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백장선(百丈禪)의 요체가 됐다.

실제로 백장은 80이 넘어서도 농기구를 들고 솔선하여 논밭으로 나가곤 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방장실에서 쉬지 않고 울력에 참가하니 시자는 물론 전 대중이 스님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시자가 호미와 괭이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자 백장은 "덕이 없어 이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수고롭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하며 이리 저리 연장을 찾다가 그날부터 공양간을 가지 않았다. 결국 시자가 연장을 도로 내어드리고 나서야 백장은 공양을 했다. 대중 모두가 낮에 일하는 날에는 반드시 밤에 선당에 모여 좌선을 했다. 좌선하기 전에 백장은 간절하게 설법을 했다.

"공부는 때 묻은 옷을 빠는 것과 같다. 옷은 본래 있는 것이나 때는 밖에서 온다. 모든 소리와 색은 기름때와 같은 것이니 아예 마음에 두지 말라. 흐르는 허물을 끊고 공부하기를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 해야 할 것이다."

농선(農禪)의 보청정신 자립의 기반을 다지다

물론 수행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른바 농선쌍수(農禪雙修)는 4조 도신으로부터 비롯됐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도신은 500명의 대중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쌍봉산 산자락을 개간하여 논밭을 만들었다. 그 결과 노동하는 수행자들의 신체는 건강하게 단련됐고, 절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세금이 줄어들었다. 이는 '선과 노동은 하나다' 라는 선농일여 사상의 출발점이 됐다. 도신이 '좌선을 근본으로 하되 15년은 노동해야 한 사람의 먹을거리를 얻어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 고 주장한 바, 백장의 보청보다 100년이나 앞선 가르침이었다.

백장과 제자들의 선화 중에는 노동을 소재로 한 공안이 많다. 그 한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중울력으로 밭을 개간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장이 황벽에 물었다.

"밭 개간이 쉽지 않겠지."

"대중들이 다 일했습니다."

"도용(道用)만 번거롭게 하였군."

"어찌 감히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얼마나 개간하였는가."

황벽이 밭 매는 시늉을 하자 백장이 별안간 할(喝) 하고 고함쳤다. 그러자 황벽이 귀를 막고 가버렸다. 대중울력으로 김을 매는데 한 스님이 북소리를 듣더니 호미를 들고 일어나면서 깔깔 웃고 돌아가니 백장이 말했다.

"정말 좋구나. 이것이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가는 방편이다."

뒤에 백장이 그 스님을 불러 물었다.

"그대는 오늘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저는 아침에 죽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소리를 듣고 돌아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장이 껄껄 웃었다. 죽도 먹지 못하고 일했으니 얼마나 시장했을까. 오매불망 밥 먹을 생각만 하다가 북소리를 들었으니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노동과 선이 하나로 회통이 되는 도리다. 배고픈 자가 일념으로 밥 먹을 생각만 하는 것도 진리에 들어가는 방편과 다르지 않으리라.

최근에 복원한 백장사 대웅전과 옛 백장사의 안대가 다르다. 묵은 절집 백장사는 앞산이 안산이지만, 새로 지은 백장사는 세속으로 나가는 진입로 쪽을 바라보고 있다. 한번 들앉으면 나가기 싫은 땅이나 가람배치가 수행자에게는 좋은 터요 요사일 것이다. 절이 세속의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옛 백장사로 들어가 보니 허름한 전각과 요사가 청대의 것이다. 조사전 벽은 곧 무너질 것 같다. 한 스님이 아무아미타불을 노래하듯 흥얼거리면서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걷고 있다. 나는 스님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고 난 뒤 필담을 시도한다. 처음에는 무심하더니 중국인 길잡이가 와 설명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안내를 해준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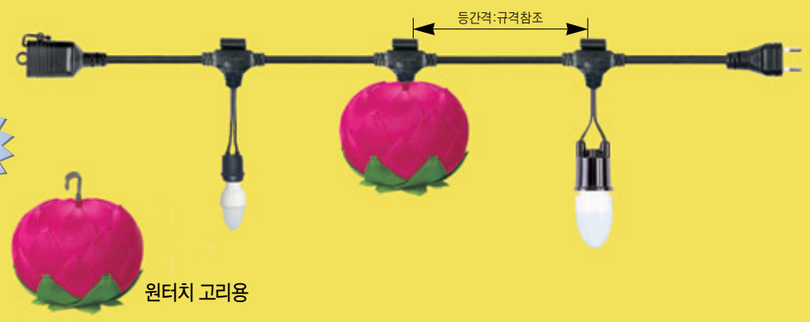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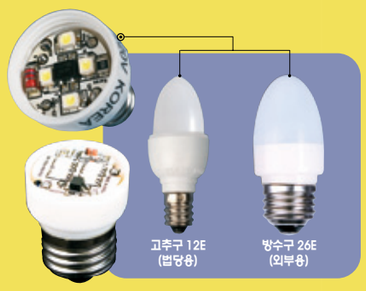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볍고 설치가 용이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불제새원기업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요절복통 여래네 집

#44. 컴퓨터게임



스튜디오 돌

여래네 집에는 컴퓨터가 2대나 있답니다,



보통 집에서 컴퓨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여래와 보리지요,



그래서 여래는 은근히 아빠를 꼬드겨보지만 번번히 엄마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곤 하지요,





사실 아빠도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에 염려가 되지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여래네 집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여래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올 겨울방학에 새로운 게임이 나온대서 모두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지 뭐에요,



여래는 이야기는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래는 당장 친구에게 연락해서 함께 게임팩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용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게임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여래도 게임팩을 사서 게임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일의 화두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도 말고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일지니 〈증부경전〉



불기 2555년 한기 4344년 서기 2011년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辛卯年 신묘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BEST SELLER 베스트셀러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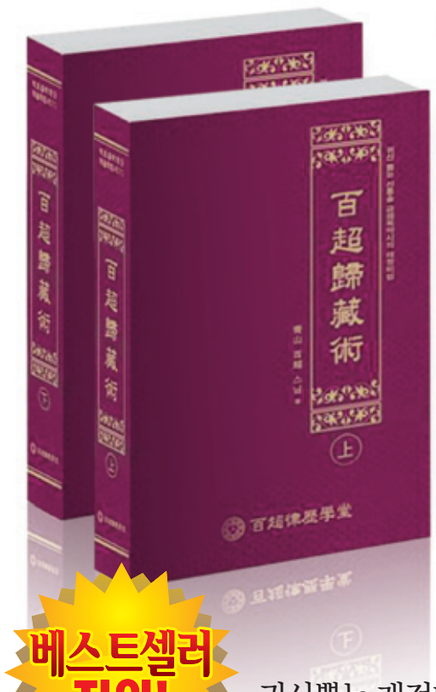
4×6배판/ 칼라제본/ 456쪽/ 정가 20,000원
문고판(포켓용)/ 칼라제본/ 456쪽/ 정가 10,000원

著者 白超 백초스님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③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불교는 평상심을 강조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시달리는 대중이 가득차 있다. 고통스러워 하는 그들을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 또 편안한 사회를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월 20일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세 번째 행사에서는 김형효 서강대 철학과 석좌교수가 '보살도와 불국토 실현의 방편'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형효 교수는 벨기에 루벵대에서 서양 후기구조주의 철학을 전공한 서양철학자다. 공군사관학교, 서강대를 거쳐 한국학대학원에서 서양철학을 강의 중인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0여 년 전 우연히 청화 스님의 저작 〈가장 행복한 공부〉를 읽은 후 불교에 입문한 김 교수는 이후 불교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원효의 대승철학〉등 불교관련 저작을 펴내는 등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한국 불교학을 접목한 수승한 학문세계를 펼치고 있다. 김형효 교수는 이날 사회를 편안케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종교 본연의 존재 이유라고 강의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잘 되려면 善해져라 "남 위하는 이가 부처다"

김형효 서강대 석좌교수, 불교가 나라 이롭게 하는 철학의 종착점… 보살심 강조

이번 시간에는 왜 보살도를 펴야 하는지, 한국에서 보살사상을 구체적으로 선양해 생활 불교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실천 사상으로 불교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혜거 스님은 먼저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보살도를 펼쳐나가는데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를 전공으로 하지 않고 일반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의 철학적 편력은 나라의 큰 도움이 되는 사상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탐구과정의 종착점, 그 나라를 이롭게 하는 철학의 종착점은 불교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불교를 생활화해야 하는가, 왜 불교를 많이 알려야 하는가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교라는 점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한국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라 함은 초기불교에서 대중부가 전신입니다. 귀족적인 상좌부와 달리 대중부는 대단히 서민적이고 자유스럽고 유연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대중부의 보다 대중적이고 쉽고 편리한 사상에서부터 발전해 나오게 됐습니다.

대중적 사상은 대중적 종교로의 변환을 꾀하며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의 사대보살사상은 대중적 신앙의 효시가 됩니다.

철학과 종교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종교는 그 성립조건에 쉽고 간이하고 편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종교는 철학보다 대중적이고 역간(易簡)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고행적이고 엘리트적인 분위기가 압도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의 이념에서 상구보리만을 의식하고 하화중생은 미약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불교가 기독교의 전파력에 비해 대중 전파, 포교력에서 밀리는 원인입니다. 대중은 어려운 고행적 수행불교에서 쉬운 기복불교로 전환하는 현실입니다.

> 철학은 난해하고 어렵지만
> 종교는 쉽고 편리해야
> 한국불교는 고행·엘리트 불교
> 보다 쉽게 대중에 다가가야

한국불교의 대중화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살도 운동으로 자리이타 운동이 필요합니다. 부처를 너무 아득한 지존의 거룩한 존재로 표상하기보다 자리 이타적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주체화해야 합니다.

불교는 유교나 기독교처럼 늘 옳음을 선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 ·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를 자리 · 이타적 마음의 화신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불교는 마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자연적으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부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것과 다르지 않음입니다.

선은 옳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고로 선을 어렵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인간적이고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즐겁게 하고 인생의 이익을 보여주신 대스승이자 화신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이익을 위해 힘쓰면 부처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쓰면 중생이 됩니다. 인간은 부처와 중생의 얼굴을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금강경의 사상(四相)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지 여부에 따라 부처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생과 부처의 갈림길은 사상을 소유하느냐 비소유하느냐는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사상의 무소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보살은 사상을 소유하지 않기보다 사상을 소유하는 마음에서 그 존재를 비소유로 전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즉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소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존재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론적 사고방식은 아상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존재론적 사고방식은 연기론적 사고방식으로 공통체적 그물방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연기론적 사고방식인 공동체적 그물망의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존재하고 이것은 저것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결국 우주일체 만물은 더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존재론적 사고방식은 공동체와 더불어 사고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생활, 일상의 삶에 있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까요. 더불어 공동체 형성에 도움되는 일하기 사고방식도 필요합니다.

보통 중생들은 유아론적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기 · 배타적인 일하기입니다. 이기 · 배타적 일하기는 나 중심의 유위적 사고방식(소유를 위한 사고방식)입니다. 반면, 부처님의 일하기는 연기론적 일하기로 자리이타적 일하기입니다. 자리이타적 일하기는 그냥 좋아서 하는 자연적 무위적 사고방식입니다.

좋은 일 하기, 보살심을 실천하기란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리이타의 공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윤리교육은 사회예의범절을 교육시키는 수준에서 충분합니다. 윤리교육이 심층적 마음의 변화를 유발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것보다 예술교육이 사람의 심성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해 심성교육에 나서야 합니다.

인간이 부처인 동시에 중생인 이중적 존재양식을 갖고 있듯이 업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업은 물리적 우주의 힘처럼 마음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하죠. 결국 업은 그 사람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에 내가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단점은 동시에 그 사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업은 나를 그러한 일종의 존재양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특성, 나의 재주,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이 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업은 다각도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의 조기교육을 돌아봅시다. 요즘 아이들을 해외에 조기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조기유학을 보내면 남편과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로인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 어떤 이의 단점은 장점되기도
> 업은 장·단점 구분해 발현된 것
> 나와 남 모두 즐겁게 하고
> 인생의 이익 보여주는 이가 부처

있을까요. 모든 이들이 조기유학을 간다면 조기유학의 장점이 발현될까요. 모든 것은 상관관계와 구조 속에서 연기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의 실현은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한낱 미물까지도 우리는 모두 연결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낱 미물,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위한 삶을 실천한 위인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원효 대사입니다. 원효 대사의 하심은 요석 공주와의 통혼에서 잘 드러납니다. 고승은 의식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하심의 생활화를 이룬 것입니다. 빈 허공처럼 무애함으로 '공심즉공심(公心卽空心卽共心)'이라는 보살정신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불국토의 정신은 이상주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낭만주의적 공상과 몽상도 아닙니다. 현실주의도 아닙니다. 불국토 사상은 원효 스님의 경우에서 보인 불심발현주의인 것입니다.

보살도는 도덕의지의 무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다른 존재를 위하는 자연적 마음의 발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기법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서양에서 왜 기독교가 쇠락하고 불교가 성장해 나갈까요. 서양은 과학에서 비롯된 제조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런 사상의 근원은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이 창세기를 제조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인간만이 물건을 제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인류문명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관계, 선과 악이 확실한 관계의 기독교는 조화보다는 수직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적이고 배타적 독선적 사상으로 종교전쟁을 일으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불교는 다원성을 인정하며 이치에 맞게 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서양에서 새롭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불교를 좀 더 쉽고 대중적이게 되게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차 문화 중흥시킨 초의 선사의 의문을 풀다

화봉갤러리, 명선 초의전(茗禪 草衣展) 통해 초의 선사 조명



초의 선사가 유득공의 아들 유불학에게 보내 준 그림. 파공석조도(坡公石銚圖).

차(茶)는 1000년 전 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셔온 대표적인 음료로서,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커피나 다른 음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차는 점차 잊혀져가는 존재가 됐다. 차를 마실 때의 까다로운 격식과 예는 바쁜 현대인들이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문화로 인식 됐다.

〈동의보감〉에는 차를 일컬어 머리와 눈을 맑게 하는 약초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웰빙' 열풍이 불기시작하면서 많은 연구가들이 차에 대한 효능을 속속들이 밝혀내자, 차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에게 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자연스레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다. 다성(茶聖)이라 불린 초의 선사는 〈동다송(東茶頌)〉, 일지암(一枝庵), 추사 김정희(1786~1856)와 도반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자세히 드러나지 못했다.

화봉갤러리는 이런 초의 선사에 대한 의문 해소와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명선 초의전(茗禪 草衣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초의의 유묵과 저술, 소장도서, 그와 교유했던 인물들의 간찰 등이 전시의 주를 이루며, 대부분 자본 묵서가 전시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초의의 후인들의 자료도 포함됐다.

초의 선사가 조선 후기 민멸 위기에 있던 차 문화를 중흥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초의 선사는 선수행과 차 문화를 일치시켜 다도를 중흥한 다성으로 추앙받으며, 추사 등 문인 학자와 많은 사대부들과 교유하며 조선후기 문화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실로 초의 선사의 공적들은 박영보의 〈남다병서(南茶并序)〉, 신위의 〈남다시병서(南茶詩并序)〉, 김명희의 〈다시(茶詩)〉, 황상의 〈걸명시(乞茗詩)〉 및 추사의 수많은 걸명 편지에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의 선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초의 선사에 대한 자료와 학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탓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남아 있던 자료도 여러 곳에 분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한데 모아 초의 선사의 일대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지암서책목록〉에 수록된 초의 소장도서 중 서명이 같은 도서를 전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수행과 학문, 시학의 토대가 되는 도서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시는 서울 관훈동 화봉갤러리에서 4월 3일까지 열린다. (02)737-0057, 1159

이은정 기자

인드라망으로 얽힌 시 문학과 현대미술

가나아트 '시화일률(詩畵一律)' 전 개최



"내려갈 때 / 보았네 / 올라갈 때 / 보지 못한 / 그 꽃"

고은 시인의 작품 '그 꽃'이 켄트지 위에서 한 떨기 꽃으로 재탄생 됐다. 꽃잎이 금방이라도 떨어지고, 나비가 날아다닐 것 같은 이 작품(사진)은 고영훈 화백의 '그 꽃'이란 작품이다.

김지혜 화백의 '머리에 꽃달기'라는 작품은 흰 종이 위에 허공에 기대는 듯한 난초 잎을 그려내 나태주 시인의 '기쁨'을 형상화했다. 이 밖에도 홍지연은 빨갛고 터질듯한 동백꽃으로 김효중의 '얼음 불꽃'을 표현했다.

가나아트는 2011년 새해를 맞이해 문학과 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시화일률(詩畵一律)'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시전문 계간지 〈시와 시학〉 창간 20주년과 현대시 박물관 개관 3주년을 기리며 문학평론가 김재홍, 미술평론가 윤범모에 의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74명의 시인과 43명의 화가들이 참여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선보였다.

시와 그림은 전통적으로 시정(詩情)과 화의(畵意)가 조응하는 예술세계를 표현하며, 심미적 세계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해 왔다. 전시장에는 시는 형상 없는 그림이고, 그림은 형상 있는 시라는 뜻의 무형화 유형시(無形畵 有形詩)를 체현한 80여 점의 시와 미술작품이 1부와 2부로 나눠 구성돼 있다.

43명의 화가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를 한 편씩 선택해 작품으로 시를 형상화 했다. 시의 예술혼을 회화적으로 구현해 시대정신이나 인간사에 관한 성찰 또는 삶에 대한 기원을 표현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화가들은 극 사실에서 추상까지 다양한 작품경향을 망라했다. 일반적으로 화가들에 의한 시 작품의 조형화 작업은 흔치 않은 기회로 이번 전시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전시에 선보여지는 40편의 시작품들이 정지용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시와시학상 등 3대 문학상 수상작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과 〈시와 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들의 대표작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은 더욱 의미있다.

시와 그림은 단순히 문자와 화면이 결합된 가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계된 창조물로서 구현됐다. 전시는 시문학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가 교류해 낳은 작품들을 통해 그림 속의 서사성, 문학 속의 회화성을 함께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시는 부산 해운대구 가나아트 부산에서 2월 23일~3월 13일 열린다. (051)744-2020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6~2.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4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7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
8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9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감산	정우서적
10	행복, 비움으로 얻는가 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신간도서

■ 읽기의 역사



사람은 5~6세가 되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읽기를 계속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기를 하면서도 그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먹기, 마시기, 멋 내기, 여행, 사교 혹은 레저와 스포츠보다는 읽기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평일이면 매일 5~8시간을 소비하는데, 잠자는 데도 그 정도 시간을 사용한다. 컴퓨터나 인터넷 둘 다 모두 읽기 혁명이다. 읽기가 일이나 웹(web)보다 훨씬 많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읽기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음악이 영혼에 미치는 것과 같다.

스티븐 로저 피셔의 〈읽기의 역사〉는 읽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앞으로 읽기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책을 얼마나 읽을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또한 책은 서양의 읽기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한국 · 중국 · 일본 · 인도에서의 읽기의 발전도 다루고 있다. 이들 역사를 통해 읽기의 과거 · 현재 · 미래에 관한 세계를 알려주고 있다.

스티븐 로셔 피셔 지음 | 신기식 옮김 | 지영사 | 1만8000원

■ 체인지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에는 육체적 안락과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 둘 중 우위에 있으며 영향력이 큰 쪽은 아마도 마음의 평안일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우면 사소한 육체적 불편과 고통쯤은 너끈히 참아낼 수 있다. 마음의 상태는 이처럼 인간에게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을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명상은 특정한 정신 상태를 구현하거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데 요긴한 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 전념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신 자체를 탐구하는데 관심을 쏟을 때이다.

샤피로 부부의 〈체인지〉는 2010년 노틸러스 북 어워드에서 '사회변화 · 평화해결' 부문 금상으로 선정된 책이다. 샤피로 부부는 책을 통해 좀 더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명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과 더불어 달라이 라마, 로버트 서먼, 람 다스, 조지프 골드스타인 등을 비롯해 영화배우,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 인류학자, 심리치료 전문가, 노벨의학상 수상자 등 각계각층의 권위자들과 명상 수련가 100여 명이 들려주는 체험담을 짜임새 있게 엮었다.

에드 샤피로 · 뎁 샤리포 지음 | 최소영 옮김 | 생각의나무 | 1만5000원

■ 고양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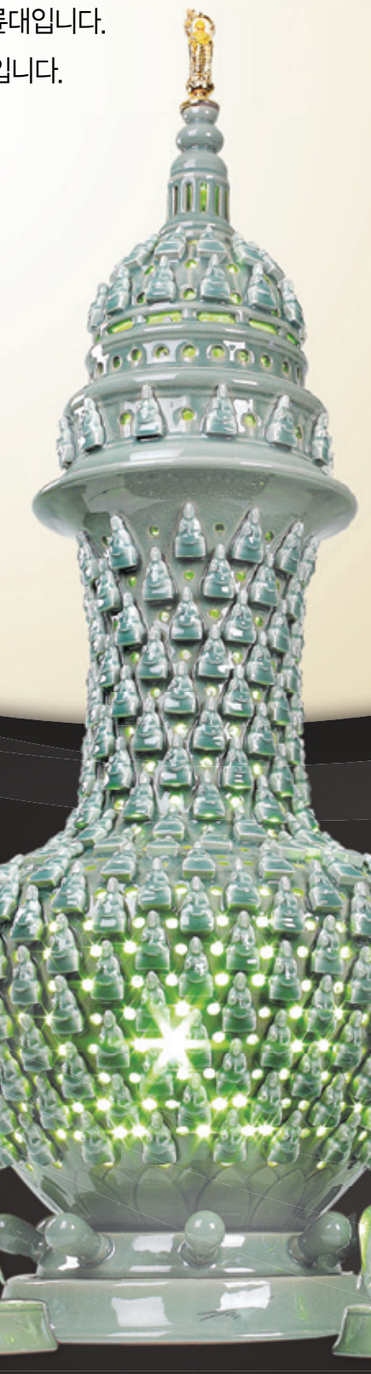
샤를 페로의 〈장화 신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등 고전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부터 고양이에 대한, 고양이가 주인공인 작품들이 무수히 많다.

〈고양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역시 이런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책이다. 책은 배우인 남편과 소설가인 아내가 써내려간 수필로서, 어린 시절 이야기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고, 손자 · 손녀를 보기까지 그들 곁에 항상 있던 고양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들이 바라본 고양이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변덕에 쉽게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의 애정을 구걸하지도 않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골목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루이와 플레데리크 두 사람은 동반자이자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서 고양이의 미덕을 적어 내려간다. 그들은 고양이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방법, 명상의 즐거움,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충실함까지. 고양이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책은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

프레데리크 에브라르 · 루이 벨 지음 | 정기헌 옮김 | 다른세상 | 1만1000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기도, 성취, 영험 도량
각종 난치병, 치매, 사업성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011-9476-9001

무형문화재연수원(작법)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전문교육대학 卍 해동사
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연수원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큰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하게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011-854-8107
영축산 토방 .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천도재 49재 각종의식
모든행사는 춤
(가슴의 흔)으로 통합니다.
천수바라, 승무,
살풀이(진혼무), 창작, 극락무
• 법사의식대학
• 무형문화재
• 춤추는포교사 천수화(대구 팔공산)
019-506-7552

사주(명리) 지도하여 드립니다
사주(명리) 배우느라
고생하신 분,
문의하여주십시오.
개인지도, 그룹지도하여 드립니다.
스님, 교임포교사 환영합니다.
010-8606-6151 현인 스님

사찰운영 같이 합시다
혼자 절을 가지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잘 되지도 않는 곳에 혼자 절을 지어
짧은세상 어렵게 살지말고 여기 6억원
들여 시내 한편에 목조로 불사를 잘한
이곳에 1억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수행합시다
등기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니스님을 원합니다
아니면 노보살님도 괜찮습니다
011-9837-8668

금광 자미두수
신통방통 자미두수
자미두수 결정궁합
저자 : 김정희 원장 직접상담
기업은행 018-097249-01-011
사주,궁합,작명,운세,택일,신생아이름, 개명, 정신질환, 귀신병,우울증,이명,빙의치료,퇴마치료
02)921-1954 / 018-276-1954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번출구

옛날 물건 무조건 삽니다
도자기, 그림,
고가구, 기타
출장 감정 해드립니다.
동진불사
010-8690-9698

아름다운 섬,
한산도 절입니다.
종무원 구함
(보시금 없음)
055)648-49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경기도 남양주
016-293-1705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비구
▷마산
016-428-6665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515-0664
법당보살
공양주 모십니다
010-2828-0664
▷개원사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좋은인연 만나서
평생을 같이 사실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비구니 스님도 모십니다.
061)543-5551
010-4427-2256

승복 및 책(경전) 구합니다
작거나 크거나
낡아 입지 못하고버려야
겠다고 생각되시면 무료로
보내주십시오. (착불)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289번지
도선 합장
010-2011-1020

부전스님(비구)
모십니다
법당보살 모십니다
041)836-50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02)2234-2198
011-9721-2198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 010-3452-1123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비만해소,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폐암,유방암,항암효과,변비,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스님,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장암 010-2367-0200

무아 스님 황토 氣 토굴 최초 공개
• 항암 치료중 면역력이 떨어져 치료에 힘이 들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분 (암, 당뇨, 성인병)
• 수술 후 몸에 기운이 없어 회복이 늦는 분.
• 항생제, 약물과용으로 배독을 해야 되는 분.
• 1회 체험으로 본인이 배독, 면역력이 증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氣 토굴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구 비슬산 약천사
상담문의 011-823-2460 / 053-423-2460

옴훔훔마니달리훔타칙
• 이 진언으로 하는 기도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 구 위 패 봉 안 접 수
조상님, 여러 인연의 영가를 영구히 명부전에서 반혼재후 정성껏 모셔드립니다.
(명절,백중 무료재사봉행)
• 일반영가 1분당 20만원
• 태아 및 기타영가 1분당 10만원
문의 : 011-9371-8080
고찰 팔공산 묘적암 위패봉안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 포교원)
02)338-2158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미국뉴욕, 중국 청다오 이점트 카이로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덕연선생 약력 및 저서〉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과 교수 역임
- 인터넷 홍익TV 명리학, 구성학 강사
- VJ특공대 이색 역술인 출연
- 다음 N-사주카페지기
- 내가바로 사주왕, 사주여행 저서

인터넷 역학(사주)강좌 안내
학습내용 왕초보 입문, 격과 그릇의 이해, 테마별 사주보는 법, 육친 통변의 날개 마음을 보는 사주통변 등 무료강좌 다수
사주 기초부터 고수까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주보는 눈을 확 틔어 드립니다.
■ 인터넷 창에 '덕연풍수명리학회'를 검색 하세요.
■ http://www.sajuacademy.com
덕연풍수명리학회 문의 042)320-2444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원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2월 9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5번출구 동작구청옆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가마속에 5일간 껍질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하단 먹 7cm 10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 법 당 : 60평
- 지장전 : 58평
- 요 사 : 80평
- 부 지 : 3,800평
- 가 액 : 28억

- 위치 : 경남 남해(섬)
- 법당및요사:50평
- 부지 15,00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강원(동해안지역)
- 법당및요사:50평
- 부지 2,000평
- 가액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시장 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 상단후불탱화,신중탱화,삼존불외지장단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집기일체
- 주차장완비, 전체평수 약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400-9972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운문면
- 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
- 대지(전)1,012평
- 운문댐근교,주차시설용이
- 50여년된 작은 고찰
- 가액 1억5천만원

011-504-4321

임 법 당 안 내

- 위치: 용인시내 중심지
- 평수: 25평
- 큰방, 공양실, 욕실
- 살림일체
- 보증금 600만원 월 45만원

010-2414-498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전 세 : 1억1천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및 토굴안내

양산 신도시 부근 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35평(전통와가 5포 7포)
- 요사채 80평(방 10칸),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계곡물 철철
-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부산 강서 아름다운 절

- 총대지 : 384평
- 법당(신축)약 40평, 요사, 방3칸, 지장전, 산신각
- 단청완료, 주차장 300대
- 가액: 5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 2층 건물중 2층
- 법당20평,방1,화장실1,주방1
- 포교원 개원하지 3개월 정도
- 시설비 1천5백만원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특징: 양쪽 재래시장 있음 건강상 (급)양도, 유동인구 많음

010-3827-6869

친환경
삼베타올 SET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암 자 안 내

경관 좋은

경주 남산

010-9375-27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면소재지 독점
- 자기땅에 자기건물 20평 주차공간 넓음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원목불단
- 집기 몽땅 넘겨줌, 몸만 오시면 법회함
- 가액 : 4000만원(융자 1200만원 별도)
- 전화 후 방문

055)582-3397
017-722-7757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포항근교
- 법당 목조 20평
- 요사채 40평
- 지하수, 심야전기
- 건평 680평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510-0955

절(사찰)요양시설

복 지 시 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시장앞
- 건물 4층. 요사 3층 법당 23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1,000만원 월 40만원

070-8842-6108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포교원 안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31)677-9950~1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근교
- 대지 133평, 삼존불, 약사여래불
- 법당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 살림가능, 즉시법회가능 시설완비
- 가액: 1억 7천만원(조절가능)

010-8993-3596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이용
- 2층 법당 20평
- 방1, 화장실1, 쪽방1
- 시설완비(시설비 없음)
- 남향, 북산산 보이고 공기 좋고 조용한 주택가
- 비구니스님, 보살님 원함
-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

011-9128-2069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든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읍
- 2층건물 2층
- 법당 40평중 방3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후불탱, 지장탱신중탱화, 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
- 등산로 입구, 아파트 주변 대로변 교통원활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6556-64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주변
- 평수 130평
- 한옥건물 대웅전 1동
- 산신각, 요사채, 일주문, 주지실
-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6637-165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55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관세음대세지,지장,소불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2천만원

010-7550-97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양
- 면적 270평
- 대웅전 23평, 요사채33평 산신각, 창고
- 50년된 사찰임
- 원하는 금액에 드림

010-9215-4769

사찰(급) 안내

- 위치 : 구미 김천사이
- 대지 532평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20평
- 가액 1억 6천만원
- (은행대출 5000만원 포함)

011-540-3313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2동,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대행 스님

무심의 마음 한생각이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충족하게 담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릇 아닌 그릇이 있다면 담아질 것이고 그릇이 없다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정신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더 내면세계를 숭상하고 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상대성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바세계의 이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풀 한 포기도 빼놓지 않고 서로가 공생 공식 하며 공용 공체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불(佛)이라고 하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교(敎)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서 이어 가는 바 없이 이어 가며 꽃과 꽃, 나무와 사람끼리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전통신으로 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의 물질적인 문제 50%는 깨지고 부서지고 변하고 화하고 죽고 살고 이렇게, 사대로 왔다가 사대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래자성불이라는 것은, 본래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는 그 자체의 근본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그런 데서는 변함없는 영혼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자성불이기에 갈 것도 올 것도, 또 미래로 갈 것도 과거로부터 온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박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수박 싹이 나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이 과거의 씨를 찾으러, 자기 씨를 찾으러 그 심은 자리로 가야만 옳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씨가 화해서 싹이 되고 싹이 화해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열매 속에는 과거에 심었던 그 씨와 똑같은 씨가 바로 자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아직 심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는 현실로 왔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공해서 찰나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그것이 바로 없다고 하는 소립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도 걷기는 걸었는데 뒷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사 것을 다 놓고 그냥 여여하게 지금 실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 한 찰나를 뒤집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과거를 찾고 미래를 찾고 온통, 오늘날에도 타의에다가 내 영혼의 근본 생명을 구하고 그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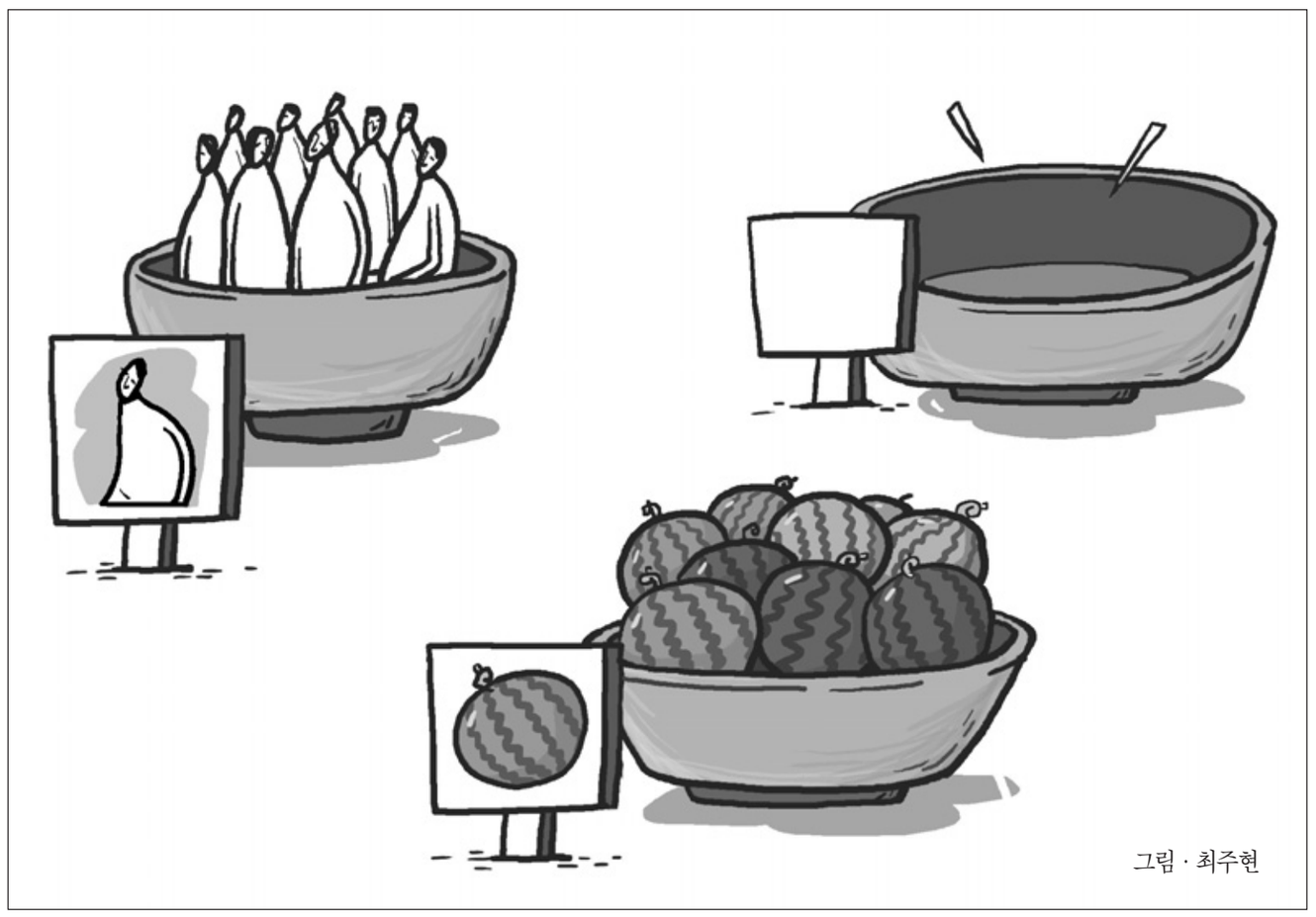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불교가 따로 있다고 분별하지 마세요. 불(佛)은 생명이요 교(敎)는 말씀이니, 불교 따로 있고 가톨릭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고 알라신교 따로 있고, 일본 불교가 따로 있고 티벳 불교가 따로 있고 통일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항아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항아리를 벗어날 수 있게끔 체가 없는 마음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바로 그 근본을 알아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 움죽거리지만 정신적으로 움죽거려야만이 남과 나를, 천체를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노동이라고 하고 정신의학, 정신과학, 천체정신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등 일체 만 가지 분야가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부풀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분야니까 요것이 제일 좋다.' '요것이 제일 잘났다.' 하고 아만 아상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한 주먹에 쥐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승복이라는 것이 바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자체의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용! 보이지 않는 데 무(無)의 세계 50%에서 바로 유(有)의 세계 50%로 발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세계 50%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산다 하면 50% 무의 세계에 걸려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승려든 승려가 아니든 가톨릭교도든 기독교도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주처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벌어진 것이니 자기부터 믿고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비유해서 말을 해 본다 하더라도 각자 여러분 몸속에 16억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억이라고 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하나의 체가 없는 마음이 한생각을 낸다면 바로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수없이 안팎 경계를 도모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바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묘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 한생각에 천당도 갈 수 있지만 한생각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로만 남한테 좋은 일을 하기보다도 마음으로써 좋은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물질로다 조금 보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끝간 데 없는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바리때를 들고 스님네들이 공양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님네들 올 때를 기다렸다가 나쁘든 좋든, 먹을 게 없든 있든, 자기 먹는 것에서 먼저 떠서 부뚜막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 보니까 그날은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보리쌀을 씻어 주고, 그 속쌀 뜨물을 얻어다가 폭폭 끓여서 식구가 먹기 전에 먼저 떠 놓은 미음 한 그릇을 스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난 스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됐어서 나무라도 한 짐 지어다가 줄 양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한 짐 잔뜩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고만 자기 은사한테 들켰습니다. 은사 스님이 "뭐 하려고 나무를 해 가지

☞ 22면으로 계속

역학 수강생 모집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들이 직접강의)

■ **육 임 학 과 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이우산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육임학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육임학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육임학 교수
주요저서 : 『육임입문』, 『육임실전』, 『대육임필법부평주』, 『육임책력』 등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5일(매주 토요일) 저녁7시~9시30분

■ **기문둔갑 과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조영택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기문둔갑 교수,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주요저서 :『기문병방론』, 『기문초급강의』, 『기문중급 고급강의』, 『실전기문』 등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1일**(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 **명 리 학 과 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 (전)서울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
(전)청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주요저서 : 『사주팔자진결(一)』, 『명리대정전』, 『복을 읽는 인상학』, 『수상과 손금의학』등
※기초완성반 : 5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전문가반 : 5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2일(수요일) 저녁7시~10시. 3월7일(월요일)저녁7시~10시

■ **관상수상학 과정** (6개월과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12시 30분

■ **타로카드 과정** (2개월과정) • 담당교수 : 장진산 교수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교육장소 : 대구시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출구 세종역학아카데미
교육상담 : 정수호교수 011-246-3933 . 053-651-8596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 건 식 품 처 방 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 육 생 상 시 모 집

중 앙 교 육 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 부 교 육 원

영 남 교 육 원	055-543-3155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지 리 산 연 수 원	063-635-5112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호 남 교 육 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 산 교 육 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 주 교 육 원	064-755-7588
해 운 대 교 육 원	051-757-9990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소소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 21면에서 계속

고 오느냐?" 하니 "제가 이만저만해서 나무라도 해다 줄 양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그 지겟작대길 뺏어 가지고 아랫도리를 그냥 능거쳤습니다. "이놈아! 한 생각의 무주상 보시가 있거늘 어찌 때 버리고 나면 그만인 나무 한 짐을 보시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내리쳤습니다. 나무를 짊어진 채 데굴데굴 구르다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스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피는 줄줄 흐르지만 너무나 상쾌해서 그때 거기에서 한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해부터 남의 마름을 얻고 남의 집을 얻고 그래서 잘살게 돼서 그 동네 일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부자가 되었더랍니다. 무심의 마음 한생각에 그렇게 무주상 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병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깨치지도 못했으니까 못한다.' 하면서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쭉쭉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깨쳤든 안 깨쳤든 자기가 생각을 잘하면, 자기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고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 생각들이 바로 그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에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괴로움이 있고 사회에서 괴로움이 있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자기가 한 대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다 입력을 다시 한다면 앞서 입력했던 것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니 화탕지옥, 독사지옥, 이런 지옥이 다 무너지면서 바로 우리는 안락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에도 걸림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작업하는 것이 바로 열반계로 드는 법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육만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인 양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탄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일체 만법을 정신계로 해 나갈 수 있고,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오고 감이 없이 모든 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가 보면, 내일모레도 또 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각처에 지원이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그래도 집에서 애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할 여유가 없고 자식과 부모가 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점점점점 그렇게 여유가 없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좋은 뿌리, 좋은 나무의 싹으로서 좋은 열매를 열리게 하고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게끔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남편 뒷바라지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고 오는 사이에 바로 뿌리가 돋워지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그것이 꽃이 피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향기가 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만 가지 맛을 내니 바로 한마음으로서 서로 귀한 보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세계 어디에 있어도 늠름하고 떳떳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당당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셨고 예수님도 몸소 그렇게 설하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느라고 애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친다면 육신의 병은 저절로 나을 겁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신다면 바로 육신의 모든 의식이 한마음으로 따라 줄 것이고, 한마음으로 따라 주니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가 돼서, 모습 없는 모습으로 남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 가지고 일을 해 나오고, 몸으로는 부지런히 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구하려면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를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볼 수 없는 데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데서 들을 수 있고, 한 번 책정을 내리면 그대로 법이 되고, 한데로 떨어지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나 사대 성인들이 다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너 마음부터 알고 사람부터 돼라.' 하고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 댈 것도 없이 사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파로써 전 세계에 두루 통신할 수 있고 텔레비전으로 안방에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체가 없는 마음이 일체 우주를 손 안에 넣고,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누진, 즉 레이더망으로써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도리는 숭상을 안 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안 하고 만날 보이는 물질세계, 학술적인 이론 또는 지식적인 문제로만 한다면 수박 겉 핥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아만 아상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한 주먹에 쥐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나보다도 백 배 천 배 낫겠죠.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팔십 살 백 살을 먹어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조그맣다고 버리고 크다고 갖고 이러지 마세요. 바로 내 몸으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우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바로 지수화풍으로 바탕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이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자력 통신력 광력 전력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잠재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지금 물만 없어도, 공기 바람만 없어도 우리는 모두 못 삽니다. 불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흙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가 없어도 바람이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만큼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면서도 이 안에 광력도 있고 자력도 있고 통신력도 있고 전력도 있습니다.

안에서 쓸 거는 안에서 쓰고 바깥에 있는 거는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력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근본인 자가발전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못 쓸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걸 맘대로 굴릴 수 있고, 그리하여 그 오신통에서, 바로 다섯 가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누진으로 가서 사대에 통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흙에도 자력이 있고 우리 인간에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땅을 딛고 다니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땅속에서 보물이 나오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이나 기름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정신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다가는 앞으로 닥치는 문제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저렇게 지구 바깥으로 도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어서 그게 달아나가면 어쩔 수가 없죠. 또 딴 사람이 써도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나 체가 없는 마음은 그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을 가게도 오게도 할 수 있는 자력의 능력이 얼마든지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교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교가 따로 있으며 어찌 부처가 어떠한 개별적인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천체가 돌아가는 이치,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치, 제자리 걸음하고 돌아가는 이치, 바로 불바퀴를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처요, 마음을 내면 여러분이 법이요, 육신이 움죽거리면 바로 여러분이 화신이라, 삼위일체가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며 내면세계의 그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정립시키면서 바로 지배인으로서 리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장래에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한 주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소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따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안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구도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인간도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 하나 없이 놓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신계를 숭상하고 능력을 기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체가 없는 마음으로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만듭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야 어찌 이 세상을 한 주먹으로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내 몸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30%, 40%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50%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업보성이나 인과성,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무너뜨리려면 바로 내가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안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있으니까 바로 자기 법신이 있는 것이요, 부처가 있는 것이요, 또 화신이 있는 것이지 도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寺)만이 도량이고 가톨릭교나 기독교의 강당만이 강당이 아닙니다. 자기가 변소에 앉아 있으면 바로 자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변소 또한 도량입니다.

이 세계,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으뜸가는 자유인이요 부처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영들 산 영들을 다 한꺼번에 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을 이루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2월 2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 121068-56-042256 [예금주: 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연등 할인가
• 공단등(6cm) @2,400원(100개이상)
•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 공단등(10.5cm) @5,000원(24개이상)
• 공단등(13cm) @12,000원(12개이상)
• 공단등(20cm) @30,000원(4개이상)
•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1Box)
• 전 통 북 등(100개) @300,000원(1Box)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 비단접등(10.5cm,12cm) @340,000원(100개)
• 바림등(6cm) @2,400원(100개이상)
• 바림등(8cm) @3,000원(96개이상)
• 바림등(10.5cm) @5,000원(24개이상)
• 바림등(13cm) @12,000원(12개이상)
• 바림등(20cm) @30,000원(4개이상)
• 칼라바림등(30cm) / 칼라공단등(30cm)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5cm / 30cm 50cm
1m / 2m ※기타주문생산

바림칼라등 30cm
연화만월등 (흰색,분홍,빨강,파랑,초록)
비단접등 10.5cm 12cm
청사초롱
전통북등색상▶ 빨강,파랑,초록 흰색,분홍,노랑
바림등

연잎(일반) 5,000원(1묶음)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전구(5W/8W) 40,00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안전인증제품
연등속지백색 1묶음 6cm 3,500원 / 8cm 4,000원 10.5cm 4,500원 / 12cm 6,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1300년을 이어준 숨결



이강렬
경기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이런저런 일로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둔황(敦煌)의 막고굴을 갔을 때마다 유난히 텅 빈 17호의 작은 굴에 한참을 멈춰 선다. 세계에서 현존한 규모가 가장 크고 완전한 불교문화의 보고로 다양한 부처상과 벽화로 천년에 걸친 생경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불사한 동굴이 1000여개에 달해 천불동(千佛洞)이라고도 하며 동굴마다 다양한 불상과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작품 틈틈이 많은 유실이 있지만 각종 부처, 보살, 천왕의 존상화나 불경에서 나오는 멋진 그림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장서 밀실이 발견된 17호굴은 장경동(藏經洞)이라 불렸다. 길이와 너비가 각기 3미터 정도의 굴 안에 발굴 당시 경서와 문서, 자수, 회화와 부처존상을 그린 명주기, 탁본 등 5만 여점의 문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포함한 이른바 둔황 문서도 여기에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의 혜초(慧超:704~787)스님이 서역을 여행한 뒤 727년 무렵에 쓴 세계 최고 여행기 중 하나로 손꼽히며,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문화·경제·풍습을 생생하게 담은 기록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지금껏 박지원의 '열하일기',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더불어 기록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인도를 천축이라 불렀다.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나눈 오천축국을 727년, 즉 지금부터 1300여 년 전 무려 4년 동안 2만 킬로미터를 순례한 글이다. 다시 말해 오천축국으로 여행 갔던 기록이다. 천축국은 인도이며, 오천축은 인도가 넓기 때문에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지방으로 구분해 한꺼번에 부른 이름이다.

며칠 전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기획전에서 선보인 '왕오천축국전'을 보러갔다. 원래는 총 227행 5893자의 두루마리 형태지만 지금은 일부분만이 현존한다. 작은 유리상자의 희미한 조명 속에 펼쳐진 폭 42㎝의 누런 종이 두루마리 앞에서 작은 전율을 느꼈다. 내 모습을 누군가 봤다면 넋이 나갔다고 했을지 모른다. 펼치면 358㎝에 이르나 깔린 것은 겨우 60센티미터만 펼쳐진 나머지는 돌돌 말린 상태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전시를 협의하면서 합의한 것인데다가, 1천년이 넘은 종이 유물이라 상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혜초스님의 놀라운 기상과 현현하는 상상력의 표현이 130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분명 글씨 이상이었고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1908년 3월 프랑스의 탐험가 펠리오가 둔황의 석굴을 지키던 왕원록에게 구입하여 프랑스로 갔고, 이번에 세계 최초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나와 전시되고 있었다. 애초부터 앞뒤 부분이 떨어져나가 책이름과 저자를 알 수 없었으나, 펠리오가 당(唐)의 혜림(惠琳)이 지은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라는 불경주석서로 알아냈다. 원래 이 책의 원본은 3권이었다고 하나, 현존본은 사본(寫本)으로 전체 내용인지 요약본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내용은 중부인도 갠지스 강 유역의 마가다국(Magadha:지금의 비하르) 기행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쿠시나가라(Kusinagara:지금의 카시아)로 갔는데, 이곳은 석가모니가 입멸(入滅)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다비장(茶毘場)과 열반사(涅槃寺)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혜초와 함께 하는 서역 기행'을 부제로 한 이번 전시는 8세기 스님이 여행했던 길을 따라 파미르 고원 동쪽의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어떻든 혜초스님이 남긴 이후 128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일반인 대상 공개도 세계 처음이라고 한다.

실크로드 관련 전시인 만큼 그밖에 관련유물 220여점이 빼곡하다. 8세기 혜초스님이 걸었던 여정인 파미르 고원 동쪽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실크로드의 도시들'에서는 카라샤르에서 출토된 황금대구가 인상적이다. 큰 용 한 마리와 작은 용 일곱 마리가 구름 위에서 노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2부 '실크로드의 삶과 문화'에서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 서역 남로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서역북로, 천산북로 등에 살았던 이들의 삶과 문화가 소개된다. 3부 '둔황과 왕오천축국전'에서는 둔황의 석굴과 벽화의 위엄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둔황 석굴 모형 2점을 전시해 둔황 막고굴의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를 현장에서처럼 느낄 수 있게 한다. 나오던 걸음을 되돌려 아마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를 작은 두루마리를 향한 눈길에 1300년의 세월을 녹였다.

사부대중 칼럼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



인나현
대진디자인고 방과후교사

1998년, 서울시내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처음으로 4개 학교에 개설됐다. 이 4개 학교 중 하나가 나의 모교이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많이 아픈 친구들이 학급당 두 명씩 있었다. 이 아픈 친구들은 '사랑의 교실'이라는 특수학급에 속해 있었다. 이 친구들은 일반적인 교과에서는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수준별 수업을 할 때에는 특수학급인 '사랑의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았고, 나는 학급당 2명씩 있는 장애우 중 수진이라는 친구를 도와주는 '도우미' 봉사자를 자처했다.

'도우미' 활동은 그들과 친구가, 언니가 되어주고 때로는 선생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분야에 낄 수가 없는 봉사활동이었다.

내 친구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수진이는 그때부터 나와 친구로 짝지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친구 수진이는 경련성 장애, 일명 간질과 정신지체를 동반한 친구였다. 나는 처음에는 학급회장으로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을 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몰라 당황하기가 일쑤였다. 나는 말만 도우미였지 수진이와 거리를 느끼고 바보친구와 어울린다는 게 부끄럽다는 마음도 생겨 살살 피했었다. 그냥 학교에서 말 한마디 않고 옆에서 잠만 자는 수진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그려러니 했었다.

수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수학교도 아닌 인문계 일반고교에서 나름대로의 고통과 진한 소외감을 느꼈으리라.

그렇게 서로 무덤덤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그 날은 수업 시작종이 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수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수진이가 울먹이며 교실에 들어왔다. 울먹이기보다는 화가 나고 화난 마음을 어디에 말할 곳이 없어 분하고 속상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나는 이때야말로 수진이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이야기를 했다. 왜 그렇게 울면서 속상해하는지.

버스 안에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어린 중학생, 몇 명의 남학생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놀렸단다. 워낙에 자주 있는 일이고 혼자 맘으로 삭히며 참고 지나치기만 했던 수진이가 그날은 용기를 내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단다.

"까불지마."

이 어눌하고 더듬거리는 발음의 한마디. 수진이가 용기를 내서 소리 지른 외마디였다. 그 말을 뱉은 후 수진이는 그 남학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

어느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수진이와 나는 그날 세상의 잔혹함을 알아버렸다.

나는 수진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수진이를 대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서 수진이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알아 볼 수 없는 글씨이지만 편지도 주고받았다. 많은 것을 함께 하면서 수진이는 나를 봉사자·도우미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해줬다. 나는 수진이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생겼다. 누군가를 돕는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진이의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 되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나는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 수진이는 칫솔용품을 만드는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을 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봉사활동의 경험은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어야하는 것이라, 지켜봐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소외 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아침을 시작한다.

社說

대토론회의 첫 번째 성적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의 첫 번째 마당이 끝났다.

발제자인 원담 스님을 비롯해 주경 스님 등 토론자들은 한국 불교의 '오늘'을 서로 다르게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가야할 방향' 만큼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밝힌 것과 같았다.

참석자들은 한국 불교가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뿐이었다.

행사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인터넷 생중계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나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의 화상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그다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발제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구체적인 핵심을 짚어나가기 어려워 보였다. 무엇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광범위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져 보였다.

종단이 주최하는 토론회라면 내부적인 아젠다부터 마련돼 있었어야 했다. 먼저 대안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첫 번째 토론회는 토론만 열어주고 발제자·토론자의 재량에 맡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말은 많이 나왔지만 정리가 안됐다. 지금까지 불교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토론회가 퍼포먼스가 돼서는 안된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토론회의 평가는 수우미양가 중 '미'이다.

대토론회가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지려면 발제자·토론자들이 맥을 짚어 촌철살인하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최 측이 더 도와야 한다. 그들을 도와야 토론회가 성공하고 한국불교가 산다.

'ZEN'의 일탈

'Zen(젠)'은 일본의 불교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쯔(鈴木大拙, 1870~1966)가 선을 중심으로 한 불교를 서구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선(禪)'의 일본어 발음대로 'Zen'이라 표기했던 것.

서구에서 불교가 흥할수록 'Zen'의 네임벨류도 올라갔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에서부터 가구, 인테리어, 식당에 'Zen'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뉴요커들에게 'Zen'은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뜻했다. 그들은 단순하고 심플한 것들은 모두 'Zen Style(젠 스타일)'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국에서는 더했다. 러브호텔에도 'Zen'이란 말이 쓰였다.

홍콩 에로영화 〈옥보단〉이 3D영화로 제작되면서 〈3D Sex and Zen〉의 타이틀로 개봉된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네티즌들 가운데에는 "불자들이 나서서 'Zen'의 긍정적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Zen'이 친근하게 생활 속에 파고들어 대중화돼 있다는 이유이다.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Kimchi)'는 해외에서 점점 '기무치(Kimuchi)'로 알려지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새롭지 않다.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의 말처럼 한국은 간화선 수행 종주국이다. 이제 국제적으로 일본에 선점당한 '선(禪)'을 'Seon'으로 되찾을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 산 1만 5천평 포함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개금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식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바른정법.바른인연

부처님의 정법 (경전 및 조사어록)만을 고집하는 수행 납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대웅전(법당)을 건립하고저 하오니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재, 부적, 철학, 조류방생, 인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등의 일체 기복을 사절하오며, 시한부 암환자나 희귀병자, 신병등의 환자분들과 **인간 방생의 인연을 짓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의 도량에서 소리 소문없이 정법의 기도로서 지난 십 수년간 책을 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 각자 새 삶을 얻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현재는 천일기도 및 동안거 백일기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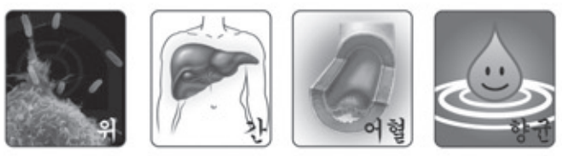
불.법.승. 정법.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동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聚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積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족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후 아침에 숙변이 엄청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꾸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족 음식을 마음대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체도 확 줄어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너무좋은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며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은 정상이 없어 퇴원 후 2주마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이 됐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더니 놀랍게도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도 놀라워하며 생각하게 되었다.
2주마다 가던 병원을 3개월에 1번오라는 말을 들게 되었으며 혈액의 간수치는 35로 돌아왔으며 혈당도 4에서 3.5로 떨어졌음.
더욱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치료 불가능 했던 바톨우종이 완치 되었으며 면역력이 약한상태로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이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웃분에게 아토피 심한 피부병에 옻제품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구입하여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였습니다.
처음엔 예상했던 대로 1번정 심하게 넘어가 온몸 열꽃이 갑자기 생겨나 엄청난 가려움과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제품 복용지침서를 자세히 보고 복용을 하였고 사지가 아프고 저리고 하여 병원에 가서 진통제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복용한 지 하루 만에 가려움을 말끔히 가셔주었다.
하루 양에 많이 줄어 들었고 신체부위 전체에 엄청 많았는데 10일 정도 복용하였더니 거의 다 사라졌다.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100% 불만족시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